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txt

제목: [2016년 산업계 결산] 4차 산업혁명 쓰나미 ICT업계 덮쳤다  
날짜: 20161230  
기자: 고성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1230113954002  
ID: 01100301.20161230113954002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2016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는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쳤다. 이세돌 9단이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 후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연합뉴스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을 시작으로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다양한 AI탑재 서비스의 출현 등이 이어졌다. 쉼없이 몰아치는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하고 만다는 위기감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3월 국내에서 벌어진 이세돌 9단과 구글의 AI 알파고와의 대결은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생각케하는 계기가 됐다. 울산 간절곶에서 포켓몬고 게임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7월 23일 전국에서 몰려온 방문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알파고는 이 9단과의 대결에서 4대 1로 완승했다. 알파고의 승리는 앞으로 다가올 AI세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알파고 사건 이후 국내외에선 다양한 AI접목 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시돼 주목받고 있다. SKC&C는 IBM AI 왓슨을 도입해 '에이브릴'이라는 서비스 명칭으로 국내 다양한 산업에 이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왓슨을 도입해 암 진료에 사용하고 있고, 롯데그룹은 전 계열사에 IBM 왓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제2리콜이 시작된 10월 13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SK텔레콤 매장에 회수된 갤노트7이 놓여있다. 뉴시스 순수 국산 AI도 주목받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자체개발한 AI 엑소브레인을 장학퀴즈에 내보내 화제가 됐고, 솔트룩스는 '아담'을 선보였다. 이 외에도 SK텔레콤 네이버 등도 음성인식 서비스 '누구', 자동통번역서비스 '파파고' 등을 각각 시작했다. 국내에 정식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나이언틱이 개발한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는 AR 가상현실(VR) 등이 가져올 미래를 한발짝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신기술의 충격이 두려움과 함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면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는 국내 ICT산업에 먹구름을 드리운 사건이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부터 연이은 발화사고로 2개월 만에 단종됐다. 이후 전 세계 10개국에서 환불 및 교환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으로 7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갤럭시노트7은 삼성전자에 큰 손실을 줬을 뿐 아니라 ICT기술 선진국 대한민국 이라는 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txt

제목: [박소원 기자의 중국 증시 돋보기] 중국 인터넷 3강 BAT 주가 최후 승자는  
날짜: 20161215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1215101004001  
ID: 01100301.20161215101004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인터넷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최근 몇년 사이 중국에서 인터넷 금융,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등 인터넷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다. 전통 시장에 인터넷이 더해져 인터넷 오픈마켓이 탄생하고 전통 은행과 인터넷이 만나 인터넷 결제시스템이 등장하는 식이다. ‘인터넷 플러스’(互聯網+)라고 불리는 인터넷과 전통 산업의 결합은 중국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는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기존 산업과 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간파한 중국 정부도 ‘인터넷 플러스’를 정책으로 수용해 지난해 2월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두 자릿수의 고속성장을 마무리하고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이 인터넷 플러스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BAT’로 불리는 바이두(百度, Baidu), 알리바바(阿裏巴巴, Alibaba), 텐센트(騰訊, Tencent) 등 중국의 3대 IT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이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엉터리 추천광고 직격탄 맞은 바이두 =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는 인공지능과 로봇 개발 분야에서는 중국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2013년에는 실리콘밸리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구글에서 관련 부문에 종사하던 스탠포드 대 앤드류 응 교수를 대표로 영입했다. 2015년 9월에는 AI를 탑재한 가상 비서 로봇 ‘두미’를 공개하는 등 딥러닝과 융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미지·음성 인식 기술 연구·개발에도 매진해 왔으며 KFC와의 협력 하에 상하이에 로봇이 주문받는 스마트매장 KFC Original+을 오픈하기도 했다. 미래 먹거리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바이두지만 주종목인 인터넷 광고 분야에서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바이두는 지난 4월까지 190달러 선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엉터리 병원 추천광고’로 암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5월 중순 159달러 선까지 폭락했다. 바이두 주가 추이(출처: 시나재경) 중국내 디지털 광고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던 바이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알리바바에 선두 자리를 뺏길 것으로 보인다. 9월 2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두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8%로 업계 1위였지만 올해는 21.3%로 뚝 떨어져 알리바바에게 1위 자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올해 바이두의 디지털 광고매출은 88억7000만 달러(약 9조7667억 원)로 전망됐다. 지난해 디지털 광고시장 점유율 24.8%로 업계 2위였던 알리바바는 올해 28.9%로 상승하며 바이두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 내 전체 광고시장 416억6000만 달러(약 45조8718억 원)에서 알리바바의 디지털 광고매출은 120억5000만 달러(약 13조26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중국의 디지털 광고시장의 판세는 당분간 알리바바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eMarketer)에 따르면 2018년 알리바바의 디지털 광고시장 점유율은 33.7%로 높아지고 바이두는 17.6%로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3위인 텐센트는 바이두의 뒤를 바짝 좇아 올해 12.4%(예상치)에서 2018년에는 15.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두(출처: 연합뉴스) 의료사고 여파로 바이두의 분기 매출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바이두는 3분기 매출이 182억5000만 위안(약 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고 공시했다. 실적 발표 후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바이두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3.2% 떨어졌다. 다만 3분기 순이익은 31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28억4000만 위안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바이두가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할인에 의존해온 음식배달 서비스의 보조금 지출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의료사고 발생으로 8월까지 약세였던 바이두 주가는 3분기 들어 190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음식배달 보조금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손실이 많이 나는 사업을 팔거나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는 보도 때문이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바이두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과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프로젝트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주요 수익원인 디지털 광고시장에서의 매출 하락은 바이두 실적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BAT’ 3강 체제가 막을 내리고 B가 빠진 ‘AT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핫머니와 싸우는 알리바바 = 올 2월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온 알리바바 주가는 헤지펀드와의 싸움으로 등락을 반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알리바바는 지난 2월 초 60달러 선에서 출발해 9월 중순 107.71달러를 찍었다. 그 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린 알리바바 주가는 현재 90달러 선을 지키고 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출처: 바이두)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견인하며 견실한 성장 실적을 내고 있지만 중국 내수 둔화로 인한 실적 하락 전망과 회계 불투명 논란에 시달리며 지난해부터 글로벌 헤지펀드로부터 공매도 공격을 받아오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과 핫머니 간의 전초전이 알리바바 주식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헤지펀드계 대부로 불리는 조시 소로스는 알리바바닷컴 지분을 매입해 3대 주주로 등극했다. 6년 동안 잠자코 있던 소로스는 2015년 갑자기 행동을 개시하며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보유주식 439만주 중 6만주만 남기고 433만주를 모두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3억7000만 달러(한화 약 4300억원)에 달하던 지분 금액은 490만 달러(한화 약 57억원)로 줄어들었다. ‘트로이 목마’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급습이었다. 대표적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도 소로스의 공격에 가세해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 5억5700만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알리바바 주식 중 98.6%를 팔아치우며 알리바바를 흔들었다. 헤지펀드의 공매도 공격에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그해 8월 ‘주식 대량환매’를 방패로 꺼내들었다. 마 회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2년간 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환매할 것</span>”이라면서 공매도에 대한 방어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공격으로 알리바바는 그해 5월 21일 93.88달러에서 9월 28일 57.39달러로 주저앉았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알리바바 1차 공격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알리바바 흔들기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2차 공격이 재개됐다. 이번에도 소로스가 선두에 섰다. 엔론 공매도로 유명한 짐 차노스도 같은해 11월 “알리바바를 팔고 경쟁사인 징둥닷컴(JD.com)을 사야 한다”며 공매도 공격에 동참했다. 알리바바 주가는 5% 넘게 하락하면서 출렁였다. 지난해 12월 80달러 선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였던 알리바바 주가는 핫머니의 난타에 올 2월 60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앉았다. 2차 전투가 시작되자 마 회장은 이번에는 대량환매 방패 대신 ‘견고한 기업실적’이라는 칼을 꺼내드는 것으로 작전을 바꿨다. 알리바바 주가 추이(출처: 시나재경) 올 9월 30일까지 집계된 알리바바의 2016년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51억4000만 달러. 2분기 순이익은 11억4000만 달러로, 작년 분기 순이익에 반영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할 경우 7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바바의 매출 증가에는 주요 사업인 전자상거래의 기여도가 가장 컸고, 클라우드컴퓨팅과 엔터테인먼트와 사업 부문에서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의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주가는 1·2차 공격을 받기 전 수준을 회복해나가고 있다. 다만 알리바바 공매도 세력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알리바바 주식에 대한 공매도 규모가 올 9월 말에 역대 최고치인 129억 달러(한화 약 15조원)까지 증가했으며 11월에도 119억 달러(한화 약 13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안정적 성장 일구는 텐센트 = 이에 비해 중국 홍콩시장에 상장된 텐센트는 핫머니의 공격 없는 ‘무풍지대’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삼성전자로도 비유되는 텐센트(700. HK)는 상장 12년 만에 주가 300배 상승, 지난 9월 시가총액 기준 아시아 최고주 등극 등 기록 행진을 해왔다. 지난 5월 홍콩증시에서 150 홍콩달러 수준이던 텐센트 주가는 8월 22일 204.8 홍콩달러(한화 약 2만9400원)로 치솟으며 ‘마의 200 홍콩달러’를 돌파했다. 9월 28일 218.20 홍콩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11월 중순 이후 다시 180~190선으로 내려앉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텐센트가 BAT 중 가장 높은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텐센트 주가 추이(출처: 시나재경) 이러한 전망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텐센트에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인공지능(AI) 시장을 1000억위안(약 16조5000억원) 규모로 키울 것이라는 ‘인공지능 3년 행동시행 방안’ 발표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텐센트는 △스마트컴퓨팅 검색 실험실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기사를 완성하는 '드림라이터'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또다른 분야인 핀테크 기술도 텐센트의 주 종목이다. 중국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신용카드를 연결해 결제하는 ‘위챗페이’ 이용자는 올해 2억명을 넘었다. 지난 2분기 위챗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 수입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36억9700만 위안(한화 약 6226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닷컴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온라인쇼핑 분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 텐센트 매출 중 게임 분야가 여전히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SNS와 모바일 결제, 온라인쇼핑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BAT 중 바이두가 뒤쳐지고 AT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아시아 대장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5일 텐센트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을 누르고 아시아 대장주에 등극했다. 그리고 11일 후인 16일에는 알리바바가 텐센트를 추월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며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텐센트(출처: 바이두)  전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사이트인 미스터 캡에 따르면 12월 10일 기준 알리바바 시가총액은 2363억 달러(한화 약 277조원)로, 2298억 달러(한화 약 269조원)를 기록한 텐센트에 살짝 앞서 있다. 바이두는 시가총액 597억 달러(한화 약 70조원)로 텐센트나 알리바바 시가총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뒤쳐져 있다. 지난 1~3분기 누적 주가 상승률에서도 텐센트는 40%, 알리바바는 30%로 상승했지만 바이두는 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신성장동력 ‘인터넷 플러스’ = 중국에서 ‘인터넷 플러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2년 11월. 중국 IT시장조사기관 엔포데스크(易觀智庫 Enfodesk)의 위양(於揚) 회장이 처음 거론한 인터넷 플러스는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전통제조업과 융합해 산업 구조를 전환시켜 나간다는 개념이다. 위 회장은 “<span class='quot1'>인터넷은 하나의 도구로 전기와 같은 인프라이며 어디에나 존재하며 효율을 높여주는 기기</span>”라면서 “<span class='quot1'>모든 업종에서 인터넷 플러스를 활용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업종의 비효율 지점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만약 아직 인터넷을 통해 변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고 나아가 그 기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span>”고 밝혔다. 위 회장에 따르면 전통 광고에 인터넷이 더해져 ‘바이두’가 탄생했고 전통 시장에 인터넷이 합해져 인터넷 오픈마켓인 ‘타오바오’가 생겨났으며 전통 백화점에 인터넷이 더해져 ‘징둥’(JD닷컴)이 등장했다. 또 전통 은행에 인터넷이 더해져 인터넷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가 나왔고 전통 보안 서비스에 인터넷이 더해져 인터넷 보안업체인 ‘치후 360’(Qihoo 360)이 등장했으며 전통 중매에 인터넷이 더해져 결혼 중매 사이트인 ‘스지자위안’이 탄생할 수 있었다.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견인하는 핵심 IT기업인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도 인터넷 플러스에서 중요한 개념이 ‘연결’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span class='quot2'>가장 기본적인 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한 텐센트의 QQ(인터넷 메신저)와 웨이신(위챗, 모바일 메신저)은 현재 사람을 서비스, 시설, 콘텐츠 소스 등과 연결해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마화텅 텐센트 회장(출처: 바이두) 그는 인터넷 플러스와 관련해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남아도는 자원의 이용률을 끌어올림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한다”면서 “가령 카풀, 하우스 스와프(숙박시설 물물교환), 중고거래, 가사 관리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인터넷 플러스가 무궁무진하게 진행되면서 대표적으로 디디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txt

제목: 보험 가입내역 한번에 확인해요  
날짜: 20161128  
기자: 김상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1128123443002  
ID: 01100301.20161128123443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앞으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보장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8일 오전 10시부터 클릭 한번으로 보험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 다보여(credit4u.or.kr)' 서비스를 시작했다. '내보험 다보여'에 접속해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 중 한가지 방식으로 인증하면 자신의 계약 현황과 보장내역, 보험료, 납입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현황과 관련해 이용자가 가입한 전체 보험계약·보험료 납부현황 등의 정보를 그래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보장기간도 알려준다. 사고가 났을 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장의 전체 계약과 상세 보장내역도 나열해볼 수 있다. 특히 분석통계를 이용하면 성별·연령대별 상위 10개 주요 보장을 선정해 자신이 속한 그룹의 평균 보장금액과 자신의 실제 보장 수준을 비교해볼 수 있다. 40대 남성이라면 동년배 남성의 평균 암 진단 보장금액과 자신의 보장 수준을 비교해 암보험을 추가로 들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실손형 보장의 경우도 정액형 보장과 마찬가지로 계약과 전체 보장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분석통계를 이용하면 각 보장의 성별·연령대별 가입률과 본인의 가입 정보, 중복가입 여부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txt

제목: 만 8세에 초경하고 고환 커지는 성조숙증  
날짜: 2016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809080945330  
ID: 01100301.2016080908094533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요즘엔 ‘결핍’보다는 ‘과잉’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시대이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과 달리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자 영양실조보다는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소아비만으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소아비만이 야기하는 문제들 중에는 소아당뇨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요즘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성조숙증이다. 오랫동안 성조숙증을 양·한방 협진으로 치료해온 ‘서정한의원’의 박기원 원장을 만나 최근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성조숙증에 대해 알아봤다.  <br/><br/><br/> <br/><br/><br/>성조숙증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아닌 일찍, 그것도 너무 일찍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여자아이는 만 8세 이전에 유방이 발달하거나 초경을 시작하고, 남자아이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 경우 성조숙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br/><br/><br/>오래전부터 성장클리닉과 함께 성조숙증을 치료해와 그동안 쌓인 임상경험이 국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박 원장은 “예전에는 성장을 촉진하려는 환자가 90%이고 성조숙증 환자가 10%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조기 사춘기를 포함한다면 내원하는 환자의 90%가 성조숙증 때문에 찾아온다”라고 말했다. <br/><br/><br/>그나마 여자아이들은 엄마와 친숙한 관계인 경우가 많아 빨리 발견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엄마나 아이들이나 몸의 변화에 둔감하고 무지해 자칫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br/><br/><br/><br/><br/> <br/><br/><br/> <br/><br/><br/>10년 전에 비해 전염병 속도로 느는 성조숙증 <br/><br/><br/>그렇다면 왜 성조숙증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성조숙증으로 진단되면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워 최종적인 키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찍 성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먼저 성장이 멈춰 막상 급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성장판이 닫혀 그 이후에는 제대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2차 성징이 일찍 나타남으로써 친구들과 다른 자신의 몸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고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해진다. <br/><br/><br/>그 다음으로는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성인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스무 살 무렵까지 자라야 하는 심장이나 간, 콩팥 등이 성장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여자아이의 경우 조기폐경이나 생리불순, 여성 암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단다. <br/><br/><br/>그러면 왜 10년 전만 해도 일반적이지 않던 성조숙증이 느닷없이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번지고 있을까. 실제로 건강보험심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아이들보다 9년이 지난 2015년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약 12배나 늘었다고 한다. 이제 성조숙증은 비단 남의 아이 얘기만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대중적인 질환이 되었다. <br/><br/><br/> <br/><br/><br/>소아비만의 90% 이상이 성조숙증으로 이어져 <br/><br/><br/>박 원장은 급속도로 늘어난 성조숙증의 가장 큰 원인을 비만으로 보고 있다. 살이 찌면 지방과 에너지 섭취량이 늘어 2차 성징을 앞당기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가 증가하고 축적된 지방은 성호르몬의 원료가 된다고 한다. 때문에 소아비만의 90% 이상이 성조숙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살이 찌면 다 키로 간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살 찐 아이들은 성조숙증을 의심해 봐야 한단다. 따라서 성조숙증 치료는 체중을 조절해 주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박 원장의 설명이다. <br/><br/><br/>박 원장의 한방치료는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억제가 아닌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치료보다도 안전하다. 이 처방으로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1년 이상 늦춰 성장기간을 그만큼 더 길게 해주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변성기를 늦춰주는 치료를 한다고 말했다. <br/><br/><br/>어느새 대중적인 질환으로까지 커진 성조숙증.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라는 안이한 대처가 내 아이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br/><br/><br/> <br/><br/><br/>도움말 박기원 원장(서정한의원 원장)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5.txt

제목: 온라인 보험시장 진입한 동양생명  
날짜: 2016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708134531570  
ID: 01100301.20160708134531570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동양생명이 이달 1일부터 '수호천사 온라인(online.myangel.co.kr)'를 개설하며 온라인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br/> <br/>동양생명 온라인보험은 보험가입 등 관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약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PC와 모바일(스마트폰, 테블릿)을 통해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r/> <br/>온라인으로 출시한 상품은 '(무)수호천사온라인예비맘보험', '(무)수호천사온라인한번만내는어린이보험' 등 2종이다. 두 상품 모두 일시납으로 설계돼 보험료를 한 번만 납입하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은 앞으로 상품 라인업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r/> <br/>'(무)수호천사온라인예비맘보험'은 한번의 보험료 납입으로 산모를 위한 임신중독증과 태아를 위한 저체중 출산을 주계약으로 보장해주는 생명보험업계 최초의 산모보험이다. 임신 23주 이내의 17~40세 임산부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30세 기준 2만4700원이다. <br/> <br/>'(무)수호천사온라인한번만내는어린이보험'은 일시납 어린이보험 상품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암진단을 비롯해 질병, 재해수술, 골절치료, 주산기질환 등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핵심보장을 제공한다. 보험료는 자사의 기존 어린이보험 대비 약 30% 가량 저렴하게 설계했다. 태아부터 8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어린이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동양생명 관계자는 "모바일 세대의 젊은 연령층을 타깃으로 하는 채널 다변화 전략을 검토한 끝에 온라인 채널 진출을 결정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6.txt

제목: 맞춤 자동차보험 온라인에서 비교하세요  
날짜: 2016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520122221631  
ID: 01100301.2016052012222163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다음달 말부터는 자신이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를 온라인에서 비교해 가장 싼 자동차보험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br/> <br/>실손,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모바일 버전도 오픈된다. <br/> <br/>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오픈한 '보험다모아' 기능 강화 차원에서 오는 6월말부터는 차종, 연식, 운전자범위,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자동차 보험료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br/> <br/>지금은 자동차보험상품을 비교할 때 차종, 가입연령, 연력특약 등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고이력 등 개인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비교정보와 실제보험료가 차이가 났다. <br/> <br/>개편된 시스템은 이에 더해 기존 조건의 선택지를 세분화하고, 가입경력, 운전자범위, 차량연식, 할인할증 여부 등을 세세하게 반영해 더 정확하게 예상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br/> <br/>기존 비교조건의 선택지 조합 수는 약 2000개인데, 개편 시스템의 비교조건 선택지 조합은 약 30억개로 늘어난다. <br/> <br/>이밖에 해외 여행자보험, 암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상품도 비교 기준을 표준화해 비교를 간편화했다. <br/> <br/>해외 여행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한 조건으로 실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고, 암보험은 표준가입조건과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비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br/> <br/>하반기부터는 보험다모아의 정보를 인터넷 포털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br/> <br/>금융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인터넷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해 원스톱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br/> <br/>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실제 보험료가 비교 가능해지고 보장성 보험의 보장범위가 표준화되면서 보험회사 간 보험료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7.txt

제목: "소프트센, 2020년엔 의료정보 포털"  
날짜: 2016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519130922901  
ID: 01100301.201605191309229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의료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소프트센이 의료정보 포털기업으로 탈바꿈한다. 김재홍 소프트젠 대표는 18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별화된 솔루션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헬스인포메틱스 기반 빅데이터 사업 분야를 선점하고 개척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원격진단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 포탈서비스(가칭 '센닥터')를 2020년부터 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br/> <br/>소프트센은 강남 세브란스 검진센터 의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울산대 임상 빅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국립 암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대형 의료기관의 헬스인포메틱스 기반 빅데이터 사업을 수주하는 등 2014년 이후 의료정보 포탈로 가기위한 정지작업을 꾸준히 해 왔다. <br/> <br/>소프트센은 또 아마존 웹 서비스와 제휴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IBM 국내 통합 총판권을 획득해 슈퍼컴퓨터 왓슨(Watson) 활용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개발중이다. 소프트센은 2015년 매출 723억원에 영업손실 38억원으로 적자를 냈지만 올해 매출 1140억원, 영업이익 31억원 달성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성하는 입장이다. 올 1분기 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또 2020년엔 의료정보 포털기업으로 탈바꿈하며 매출 5000억원을 올리는 게 목표다. <br/> <br/>김 대표는 소프트센은 지난 2014년 설립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소를 발판으로 헬스인포메틱스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차세대 IT 융합 비즈니스 연계를 가속화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8.txt

제목: 발암추정 '글리포세이트(유전자재조합식품 제초제)' 규제요구 확산  
날짜: 2016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517131315616  
ID: 01100301.20160517131315616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지난해 3월 국제암연구소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제초제로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로 지정한 이후, 최근 국내에서도 이 제초제의 공개와 사용을 규제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br/><br/><br/> <br/><br/><br/>보건연구단체인 '건강과 대안'은 17일 오후 서울NPO지원센터에서 'GMO 확대 그리고 글리포세이트 위험 논쟁'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국제암연구소는 몬산토가 GMO작물 재배를 위해 생산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사용중단을 권고했다"며 "그 위험성을 공유하고 국내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br/> <br/><br/><br/>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원(의사)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농부들에게 비호지킨림프종이라는 혈액암 발생이 증가했고, 동물대상 연구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먹인 동물에게 각종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번 증명됐다"며 "인간의 유전자와 염색체에 손상을 가한다는 사실도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글리포세이트의 국내 수입과 제조 사용방법과 그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r/><br/><br/> <br/><br/><br/>◆유럽의회 공공장소 사용금지 조치 = 한편 유럽의회는 최근 글리포세이트의 조건부 사용을 7년으로 줄였고,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br/><br/><br/> <br/><br/><br/>이런 입장과 관련해 몬산토 측은 "기준대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몬산토 측은 유럽식품안전청이 '글리포세이트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낮고, 증거들은 이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고무돼 있다. 몬산토 측은 "국제암연구소의 분류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취합해 해석했고, 비표준적인 독성학방법론을 따랐으며, 일부 과학자 그룹의 해석만을 반영했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세계과학자 94명이 연서해 '유럽식품안전청의 평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성명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글리포세이트 안전성 논란은 더욱 커졌다. <br/><br/><br/> <br/><br/><br/>글리포세이트에 대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논란에 따라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br/><br/><br/> <br/><br/><br/>식약처는 "글리포세이트는 프로게스테론의 생산을 억제하는 등 내분비 교란 물질의 하나로 의심받고 있으나 아직 논쟁 중"이라고 밝혔다. △접촉에 의해 피부와 눈을 자극하며 호흡에 의해 코와 목 점막을 자극하기도 하고, △과도한 노출에 의해 오심, 구토, 설사, 저혈압 및 혼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간과 신장에 독성이 있는 것로 알려지고 있으며 과량에 의해 부정맥으로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발암 인과관계에 대한 입장은 정해져 있지 않다. <br/><br/><br/> <br/><br/><br/>◆GMO 유전자 오염 방지 사회적 논의 필요 = 식약처는 2015년 10월15일자로 글리포세이트 잔류기준 개정안을 '밤 0.2에서 0.05'로 '복숭아 0.2에서 0.05'로 강화해 행정예고를 했다.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br/><br/><br/> <br/><br/><br/>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초제에 대한 논란의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밤과 복숭아 외 다른 작물도 그 기준치를 수시 혹은 정기적으로 평가해 안전성 강화하는 쪽으로 조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r/><br/><br/> <br/><br/><br/>한편 김병수 동국대 과학사회학 교수(건강과연대 연구원)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계에서 396건의 유전자오염이 보고됐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수원 등지에서 GMO벼를 시험재배가 예정되어 있어 농민과 소비자가 우려하고 있다"며 "GMO에 의한 유전자 오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r/><br/><br/> <br/><br/><br/>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비의도적 환경방출로 유전자오염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GMO 안전관리 강화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소 돼지 등 붉은 고기도 발암추정물질에 포함돼 있듯이 GMO와 관련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 안전조치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9.txt

제목: 인공 지능(AI)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과학 응용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516124804063  
ID: 01100301.2016051612480406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활용과 응용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세계 최고의 사업가와 엘리트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빌 게이츠, 엘론 머스크와 일본 최고의 사업가인 손정의 등이다. 이들 중에 AI 사업화에 가장 적극적인 사업가로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들 수 있다. 중국 최고의 인터넷 기업이 된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를 사업가의 직관으로 추진했던 손회장은 2015년 소프트뱅크 주주총회에서 앞으로 회사가 주력해야 할 사업으로 AI와 고성능 로봇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분홍빛 전망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이고 세계 최고의 우주선 기술을 보유한 스페이스X 사와 혁신적인 전기차 테슬라 모토를 창업한 엘론 머스크는 AI에 대한 다소 비관적인 우려를 표명하지만 사업화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다.   <br/><br/><br/>   AI의 대표적인 사업화 성공 모델인 전문가 시스템은 의료 진단 분야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암의 진단과 수술에도 AI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술용 로봇의 경우 2000년도에 FDA의 허가를 받은 로봇인 미국 인튜이티브 서지컬사의 다빈치의 독점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50여 대의 의료용 로봇도 전부 다빈치 제품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미래컴퍼니가 수술용 로봇사업화를 위해 제품을 개발 중으로 동물실험을 12차까지 적용한 상황이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br/><br/><br/>  의료관광은 대표적 한류관광 아이템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개발이 필수적으로 적극적인 AI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단계이다. <br/><br/><br/>  신기술의 도입과 발전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 도입기에는 그 기술의 진가를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소수의 천재와 엘리트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초석을 만들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AI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응용을 관련 대학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갖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미국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br/><br/><br/> <br/><br/><br/> <br/><br/><br/> 문의 필립스교육시스템코리아  대표 장원석 박사 <br/><br/><br/>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0.txt

제목: [인터뷰\_ 제57회 서울특별시 과학전람회 수상자들]창의성 돋보이는 탐구 작품 110점 중 우수상  
날짜: 2016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502130003354  
ID: 01100301.2016050213000335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시교육청 산하 과학전시관이 3월 23일 ‘제57회 서울특별시 과학전람회’ 본선대회 심사 후 3월 30일 입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9월 서울학생탐구발표대회에 출품한 총 1,789점 중 110점의 작품이 경합을 벌였다. 올해 출품작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현상에 대한 주제를 8개 부문(물리, 화학, 동물, 식물, 지구과학, 농림수산, 산업 및 에너지, 환경)에서 선택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탐구한 결과물이다. 1차 학교 예선에 이어 2차 본선, 3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30인의 대면심사를 거쳐 우수상을 받은 우리 지역 수상자들을 만났다. <br/><br/><br/> <br/><br/><br/>‘세대 변화에 따른 초파리의 공간 지각 능력 비교 연구’ <br/><br/><br/>명덕고등학교 2학년 김환준, 최혁, 황진영 학생(팀명: BBC) <br/><br/><br/> <br/><br/><br/>공간기억에 대한 연구에는 쥐 미로실험을 이용하지만 명덕고 2학년 김환준, 최혁, 황진영 학생(팀명: BBC)은 초파리를 이용해 공간지각능력에 대해 연구했다. <br/><br/><br/>“팀원 3명 모두가 길치라 공간지각능력이 부족합니다. 공간지각능력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던 중 초파리 역시 시각을 이용해 척추동물 같은 공간기억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견하고 초파리 공간기억능력이 유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br/><br/><br/>서울대 생물교육과 연구실에서 초파리 200여 마리를 받아와 실험을 시작했다. 초파리의 기억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로도 만들었다. <br/><br/><br/>어려운 점도 많았다. 초파리가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 예상하고 미로를 크게 제작했지만 운동성이 크지 않아 큰 미로가 오히려 미로 통과시간을 늘어나게 했다. 게다가 초파리가 더운 날씨 탓에 모두 죽어버려 새로운 초파리를 서울대에서 받아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br/><br/><br/>실험 도중 암컷 초파리가 수컷보다 공복 상태에서 먹이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이를 해석할만한 선행연구가 없어 아쉬움을 더했다. <br/><br/><br/>“<span class='quot0'>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향후 동물의 공간기억능력 분야에 대한 의미 있는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span>” <br/><br/><br/> <br/><br/><br/>‘벤젠고리 유도체의 라디칼 소거 활성 비교’ <br/><br/><br/>명덕고등학교 2학년 박상원, 이규형, 장태호 학생(팀명: SKT) <br/><br/><br/> <br/><br/><br/>탐구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논문 주제를 찾던 중 담배나 치매의 문제점을 연구하다 ‘라디칼’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 라디칼의 과다 생성이나 자외선, 담배연기 등이 식물의 주요 대사를 저해하고, 각종 암과 알츠하이머병, 노화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라디칼을 없앨 수 있는 황산화제를 찾는 연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팀원 중 그 누구도 ‘라디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용어 공부부터 시작했다. 화학 선생님과 담당 지도교사를 찾아가 질문하고 선행 연구논문과 위키백과를 꼼꼼히 읽었다. <br/><br/><br/>“실험도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재료비용이 상당히 비쌌는데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손실이 컸습니다.” <br/><br/><br/>실험하다 물 농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있어 결과에 오류도 생겼다. 이후 실험 과정 중 사소한 계산이나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다. 실험에 필요한 혈액을 팀원들이 직접 뽑아 사용하면서 연구가 완성됐다. <br/><br/><br/>서울시 대회에서 실험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심사위원들에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논문을 완성했다는 칭찬과 더 추가해야 할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에 팀원들은 뿌듯하기만 했다. 팀원들은 이 연구를 스팀 R&E 과제로 활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br/><br/><br/> <br/><br/><br/>‘은나노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br/><br/><br/>명덕고등학교 2학년 황동수, 배유림, 김준엽 학생(팀명: Isotope) <br/><br/><br/> <br/><br/><br/>은나노는 항균과 살균작용으로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은나노가 함유된 세탁기, 젖병, 칫솔, 치약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장점만 극대화한 광고가 나오고 있다. <br/><br/><br/>“2011년에 기업 이윤만 생각해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 142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 사례를 살펴보다 은나노 또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은나노의 안정성이나 위해성을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br/><br/><br/>팀원들은 올챙이, 상피세포, 제브라피시, 정자, 대장균 등 5가지 생물을 이용해 은나노의 살균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결과는 가설을 세운대로 나타났다. 은나노에 노출되자 꼬리를 자른 제브라피시는 꼬리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올챙이도 몸부림을 치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br/><br/><br/>“<span class='quot0'>은나노는 앞으로 조심스럽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증상, 유해성 감소 방법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span>” <br/><br/><br/>팀원들은 은나노 입자가 피부조직의 어느 층까지 침투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관찰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스팀 R&E 과제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구체적인 결과와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br/><br/><br/> <br/><br/><br/>‘매실 씨앗의 추출 방법에 따른 우리 주변 세균 증식 억제 효과 탐구’ <br/><br/><br/>봉영여자중학교 1학년 유연우 학생 <br/><br/><br/> <br/><br/><br/>매실청을 담글 때 독성 때문에 버려지는 매실 씨앗을 보면서 ‘버려지는 많은 양의 매실 씨앗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연우양은 매실이 식중독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에 착안해 세균 증식 억제에 활용할 방안을 주제로 연구하게 됐다. <br/><br/><br/>“<span class='quot0'>매실 씨앗이 천연 항균물질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매실 씨앗 추출액을 만들어 세균 증식 억제 효과를 탐구했습니다.</span>” <br/><br/><br/>가정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을 알아보기 위해 키보드와 도마에서 시료를 채취해보니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균, 진균이 검출됐다.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매실 열매와 매실 씨앗을 중탕 가열해서 추출액을 만들어 세균이 자라는 정도를 비교했다. 농도에 따라 세균 증식 억제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도 실험했다. 선행연구를 보니 용매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시 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메탄올과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한 실험을 추가했다. <br/><br/><br/>“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의 키보드와 도마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검출됐고 매실 열매 전체의 추출액보다 매실 씨앗 추출액이 세균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매실 씨앗 추출액을 첨가한 천연살충제의 효과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1.txt

제목: 순천향대천안병원, 대장암 적정성평가 4년 연속 1등급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418130630255  
ID: 01100301.20160418130630255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대장암 적정성평가 결과 4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에서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거의 대부분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특히 수술 사망률에서 0%를 기록했다. <br/><br/><br/>순천향대천안병원 외과 대장암클리닉은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매년 우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많은 학술상 수상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문수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대장암에 앞서 발표된 위암 폐암 유방암 적정성평가 결과에서도 모두 1등급을 기록해 명실공이 매우 우수한 암치료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역 암환자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최상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연구 정진하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2.txt

제목: 자폐는 부모의 제대로 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날짜: 2016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418130609887  
ID: 01100301.2016041813060988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브레인리더한의원 설재현 원장 <br/><br/><br/> <br/><br/><br/> <br/><br/><br/>자폐질환 관련된 카페를 가입하여 글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희망의 글 보다는 부정적이거나 <br/><br/><br/>단념 하는 글들이 더 많이 보인다. 처음 아이에게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거나 자폐진단을 받은 단계에서 부모들은 엄청난 의욕을 보인다. 병원을 찾는일부터 자폐의 원인, 진단기준 치료법, 치료사례 등 거의 반 전문의가 될 정도의 지식들을 습득하고 공부한다. <br/><br/><br/> <br/><br/><br/>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써치하여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마져도 올바르지 못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된 정보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중에 암이 걸렸을 때 가족들이 암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br/><br/><br/> <br/><br/><br/>결국 부모들은 잘못된 지식과 환자를 현혹하는 광고들만 믿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저곳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거나 반짝 나타날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가 결국엔 치료에 대한 불신과 고칠 수 없다는 단념이 자리 잡게 된다. <br/><br/><br/> <br/><br/><br/>실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부모들 중에서 그러한 부모들이 대부분이고 처음에는 날선 감정으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경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 <br/><br/><br/>이런 경우 자폐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파악과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이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서 아이의 감정이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폐아이를 돌봐온 부모일수록 자신이 우울증이나 감정기복이 심하다.  <br/><br/><br/> <br/><br/><br/>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단을 받을려고 하거나 진단을 받은 초기에 부모의 냉정함과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r/><br/><br/>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면 병원의 특성과 치료방법이 있는데 정확한 근거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얼마나 오랜 기간 연구와 치료를 해왔는지도 검토해야할 부분이다. <br/><br/><br/> <br/><br/><br/>자폐는 부모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고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치료사례를 중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3.txt

제목: 김명식 박사 등 6명 호암상 수상  
날짜: 2016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405131328010  
ID: 01100301.201604051313280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호암재단(이사장 손병두)은 5일 양자역학 대가 김명식 박사 등 '2016년도 제26회 호암상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br/> <br/>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 김명식 박사(54·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 △공학상 오준호 박사(62·KAIST 교수) △의학상 래리 곽 박사(57·미국 시티 오브 호프 병원 교수) △예술상 황동규 시인(78·서울대 명예교수) △사회봉사상 김현수(61), 조순실(59) 부부(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 등이다. <br/> <br/>이들은 국내외 각계 주요기관과 전문인사들에 의해 후보자로 추천됐다. 국내외 저명 학자 전문가로 구성된 38명의 심사위원회가 업적을 검토했다. 37명의 저명한 해외석학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평가하고 현장을 실시했다. <br/> <br/>심사위원회에는 댄 셰흐트만 교수 등 노벨상 수상자 2명, 스벤 리딘 교수 등 노벨위원 2명 등이 참여했다. <br/> <br/>과학상 김 박사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일하기 위한 기초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br/> <br/>공학상 오 박사는 한국 최초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인 휴보를 제작했다. <br/> <br/>의학상 래리 곽 박사는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했다. 사회봉사상 김현수ㆍ조순실 부부는 청소년 거리 청소년들을 22년간 보살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4.txt

제목: 불필요한 세포검사 줄이려면 갑상선 초음파검사의 전문성 필요  
날짜: 2016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405131314906  
ID: 01100301.201604051313149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갑상선 결절 환자 중 대부분은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지만, 갑상선 항진증 환자에게 결절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일 확률이 2배 정도 높다. 또한, 만성 갑상선염 환자 중에서 림프암에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만성 갑상선염이나 갑상선 항진증 환자라면 정기적인 초음파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데, 초음파는 갑상선 결절, 갑상선암 등의 진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권수범 원장은 “<span class='quot0'>초음파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포검사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초음파검사 장비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갑상선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갑상선 결절 중 5~10% 갑상선암 진단, 암 여부 구별 위해 세포검사 시행 <br/><br/><br/>갑상선 결절은 매우 흔한 질환이다.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양성이고, 암인 경우는 5~10% 정도에 불과하다. 갑상선 결절은 혹이 만져지는 외형상의 변화 외에는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서 초음파검사나 촉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음파검사를 통한 갑상선 결절 발견율은 75%에 달한다. <br/><br/><br/>“갑상선 초음파는 지난 10년 동안 갑상선 결절 진단에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혹이 암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 바늘로 세포를 떼어내는 세침흡입검사를 시행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갑상선 혹에 대해서 세포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세포검사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갑상선암으로 의심되는 혹을 초음파로 선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수원 아름다운향기유외과 권수범 원장의 설명이다. 양성결절인 경우 고주파열치료술로 혹을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불필요한 세포검사 줄이는 갑상선암 진단방법 <br/><br/><br/> <br/><br/><br/>□ 갑상선초음파 상의 결절모양 ▷ 탄성초음파, 미세혈관초음파 실시 <br/><br/><br/>갑상선초음파 상에서의 결절모양을 보고 갑상선암을 판단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구별을 위해선 일반적인 초음파검사 외에 탄성초음파, 미세혈관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다. <br/><br/><br/>과거 촉진을 통해 혹의 단단한 정도를 느껴보고 결절인지 암인지를 예측했던 것처럼 탄성초음파는 조직의 탄성도를 통해 혹의 단단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탄성이 높은 갑상선 실질이나 양성 병변과 비교해 갑상선암은 탄성이 적고 압력이 가해졌을 때 병변이 변형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적다. 미세혈관초음파를 통해선 종괴의 내부에서 관찰된 혈류로 갑상선암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권수범 원장은 “<span class='quot0'>종괴 내 혈류는 미국 갑상선학회 등의 가이드라인에도 제시되고 있는 갑상선암의 위험인자이지만, 최근 고해상도 초음파를 이용한 혈관초음파에서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span>”면서 경험 많은 갑상선 유방 전문의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음파의 성능과 검사자의 경험이 더해진 진단을 통해 세포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포검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br/><br/><br/> <br/><br/><br/>□ 방사선 노출여부, 유전적 요인 등을 토대로 한 진찰소견도 중요 <br/><br/><br/>갑상선암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방사선 노출, 과거 갑상선 질환 병력 등을 꼽는다. 악성일 경우는 나이가 젊을수록, 70세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br/><br/><br/>소아기 때 머리와 목에 방사선 조사를 받았거나 골수이식을 위한 전신 방사선조사를 받은 경우, 갑자기 혹이 커지거나 목소리가 쉬는 등 압박증상이 있는 경우, 목의 림프절이 만져지고 결절이 매우 큰 경우에도 갑상선암일 확률이 높다. “<span class='quot1'>수원 아름다운향기유외과는 서울 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에서 전문의로 재직했던 경험과 초음파검사의 전문성이 더해져 정확한 진단 및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span>”고 권수범 원장은 설명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5.txt

제목: 창의·봉사 '포스코청암상' 시상식  
날짜: 2016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331124724160  
ID: 01100301.2016033112472416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왼쪽부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윤제 포스텍 생명과학부 교수 내외, 이형규 금오공업고등학교 교장, 안규리 라파엘클리닉 대표, 장옥자 여사(고 박태준 명예회장 배우자), 권오준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사진 포스코 제공 <br/>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30일 포스코센터에서 제10회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가졌다. <br/> <br/>포스코청암재단은 과학상에 조윤제 포스텍 생명과학부 교수, 교육상에 금오공고, 봉사상에 라파엘클리닉을 선정하고 각각 상패와 상금 2억원을 수여했다. 포스코청암상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의 초석을 닦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창업이념인 창의·인재육성·희생·봉사 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6년 제정돼 10년간 총 31명에게 59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br/> <br/>권오준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포스코 창업정신과 청암 박태준 선생의 경영철학을 계승한 포스코청암상이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며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우리사회의 귀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r/> <br/>청암과학상 수상자 조윤제 교수는 암의 생성·억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한 구조생물학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조 교수는 세포가 증식할 때마다 한 번씩만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도록 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제미닌(geminin)단백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 암 치료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br/> <br/>청암교육상을 수상한 금오공고는 1973년 설립이래 산업발전의 기초인 뿌리산업에 필요한 기계 정밀 가공 측정 등 기술·기능인을 양성했다. <br/> <br/>전국·세계 기능올림픽에서 1000명이 메달을 획득했고, 8000여명의 학군부사관(RNTC)을 배출함으로써 군 장비 현대화를 통한 자주국방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해 기술명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br/> <br/>청암봉사상을 수상한 라파엘클리닉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소로 1997년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혜화동 성당 한 켠에서 30명을 진료한 것을 시초로 현재는 성북동 라파엘클리닉과 동두천클리닉에서 매주 일요일, 의료진 30명과 봉사자 150명이 진료하고 있다. 몽골 네팔 미얀마 등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도 18년간 75개국 21만여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6.txt

제목: [특허 받은 강황이 듬뿍, ‘황금추어탕’]한 첩의 보약 같은 강황추어탕  
날짜: 2016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328125104938  
ID: 01100301.20160328125104938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기력회복에 좋은 추어탕은 사시사철 건강식으로 환영받는 음식이다. 우리 몸 속 면역 중심을 잡아주는 커큐민 성분이 많은 강황은 건강식품으로 떠오른 지 오래. 특히 강황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암과 치매까지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돼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필수 섭취 식품으로 등극했다. 이 둘이 만나 환상의 조합을 이룬 음식이 바로 ‘강황추어탕’이다. <br/><br/><br/>황금추어탕은 냄새 때문에 카레를 못 먹는 사람들에게 특히 반갑다. 황금추어탕의 모든 메뉴는 카레 특유의 냄새가 없기 때문. 질 좋은 동인도산 강황을 나노분해해 커큐민의 성분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특허 받은 상품만을 사용해 냄새는 잡고 맛은 한층 끌어올렸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냄새는 없애고 맛은 올려주는 강황이 만든 차세대 건강식 <br/><br/><br/> <br/><br/><br/>황금추어탕의 주메뉴는 강황추어탕 강황솥밥 강황인삼솥밥 강황추어튀김 강황인삼튀김. 모두 강황이 들어간다. 강황색 그대로 온통 노란 색깔 속에 황금추어탕만의 차별화한 비법이 속속 숨어있다. <br/><br/><br/>황금추어탕은 천안에서 20념 넘게 까치복집을 운영하며 손맛을 알려온 조리기능장 하종률 대표의 역작이다. <br/><br/><br/>황금추어탕 하형남 대표는 “<span class='quot0'>작은 아버지의 내공 가득한 추어탕 연구 끝에 황금추어탕을 개발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입소문만으로 찾아와 단골이 된 손님들이 적지 않다</span>”고 말했다. <br/><br/><br/>황금추어탕의 추어는 국내산 양식 미꾸라지다. 국내산은 수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가 많지만 음식의 질을 위해 항상 국내산만을 고집한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무청 시래기는 햇볕에 말린 경북 예천 시래기만 사용한다. 불리고 삶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할 건만 하형남 대표는 “햇볕에 말린 시래기라야 비타민 D가 많고 비타민 D가 있어야 추어의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된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br/><br/><br/>그뿐만이 아니다. 이집의 추어탕은 남도식 전통방법으로 끓인다. 요즘은 편리하게 추어를 갈아 만드는 음식점이 많지만 여기서는 추어를 삶아 일일이 걸러 낸 후 시래기와 함께 끓인다. 그래야 맛이 쓴 내장과 뼈를 분리할 수 있고 국물이 검게 탁해지지 않는다. 황금추어탕을 자세히 보면 걸쭉한 국물 속에 추어 살 입자가 그대로 보인다. 또한 두 번 푹 끓여 만든 이집만의 진한 추어탕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허 받은 강황이 추어의 비린 맛을 잡아주어 더욱 깔끔하다. <br/><br/><br/>정성과 비법 가득한 강황추어탕과 강황솥밥 세트 메뉴를 단돈 8000원에 맛볼 수 있다. 레토르트 파우치 포장 판매도 가능하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마니아층 형성한 ‘비빔고추’ 맛에 흠뻑 <br/><br/><br/> <br/><br/><br/>강황솥밥은 솥 자체가 특이하다. 1인용 압력솥을 사용해 밥이 차지고 맛깔스럽다. 강황의 노란색이 고루 퍼진 밥에 이 집만의 비법인 ‘비빔고추’를 넣고 비벼먹는다. <br/><br/><br/>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와, 맛있다’란 말이 절로 나온다. 맵고 알싸한 맛이 입안에 확 풍기면서 풍부한 감칠맛이 가득했다. 푸르댕댕한 때깔은 그저 청량고추 다데기 정도로 보였는데 선입견을 확 깨트리는 ‘매운 고추’였다. <br/><br/><br/>“비빔고추를 탐내는 손님들이 많아요. 실은 우리집안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이에요. 강황솥밥에 같이 구성했더니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매우니까 조금만 넣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br/><br/><br/>하 대표는 강황솥밥의 절반은 비빔고추와 비벼먹고 절반은 추어탕에 말아먹는 방법을 추천했다. <br/><br/><br/>바삭바삭 알맞게 튀긴 강황추어튀김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메뉴다. <br/><br/><br/>크고 잘 자란 금산 인삼만을 사용한 인삼튀김은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마치 고구마처럼 달콤하고 부드럽다. 인삼 특유의 쌉쌀함 때문에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도 이집의 인삼튀김에는 거부감을 접어도 되겠다. <br/><br/><br/>오늘 점심, 황금추어탕에서 잃었던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겨주는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 어떨까.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7.txt

제목: 말 못할 고민 요실금, 적기에 제대로 치료받자!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321123605383  
ID: 01100301.201603211236053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타워비뇨기과과 광진점 김명준 원장 <br/><br/><br/><br/><br/>  <br/><br/><br/><br/><br/>얼마 전 요실금수술을 받으시고 이제는 손녀랑 마음껏 줄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해하시던 60대 할머니부터 요실금 때문에 계모임, 여행 한번 맘껏 못했다면서 하소연 하던 40대 아주머님까지 남몰래 고민아닌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간단한 치료만 하면 얼굴을 활짝 피고 맘껏 웃으면 훨씬 젊어질텐데...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br/><br/><br/><br/><br/>  <br/><br/><br/><br/><br/>1. 요실금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br/><br/><br/><br/><br/>요실금은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요실금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질환 못지않게 당사자를 괴롭히는 질환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시원하게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도 요실금을 “사회적인 암”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적인 요실금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br/><br/><br/><br/><br/>  <br/><br/><br/><br/><br/>요실금은 아주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요즘의 요실금 수술은 과거와 달리 간단한 국소마취만으로 30분이면 통증없이 수술이 끝나고, 2-3시간 지나면 회복이 되며, 입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실금 수술을 결심한 분들 대부분이 전에 수술한 분들의 권유로 수술할만큼 수술한 분들의 90%이상이 수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한 분들은 딴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즘 웰빙 시대에 평생을 요실금으로 계속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결심과 수술로 전혀 다른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은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r/><br/><br/><br/><br/>  <br/><br/><br/><br/><br/>2. 수술을 안하고도 요실금을 치료할수 있나? <br/><br/><br/><br/><br/>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되는 요실금이지만, 많은 분들이 수술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의 약한 요실금의 경우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체외자기장치료 등을 꾸준히 하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출산 후 예방적 목적으로 위의 치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br/><br/><br/><br/><br/>다만 최소한 6개월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으며,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에는 치료가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약한 요실금 치료나 요실금 예방이 목적인 경우에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체외자기장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은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8.txt

제목: [주말을 여는 책 | 늙는다는 것, 우주의 일] 건강한 삶의 연장, 죽음과 불멸  
날짜: 2016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304141612496  
ID: 01100301.2016030414161249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조너선 실버타운 지음 / 노승영 옮김 / 서해문집 / 1만3500원<br/><br/> <br/><br/><br/>누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생각하는 횟수는 더욱 잦다. 더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친척,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떠올린다. <br/><br/><br/> <br/><br/><br/>나는 언제 죽을 것인가? 죽음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인간은 똑똑한 존재, 즉 호모 사피엔스가 된 이후 늙음과 죽음은 같은 기차의 서로 연결된 객차가 되어 달리며 그 종착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br/><br/><br/> <br/><br/><br/>'잘 먹고 잘 사는' 웰비잉(wellbeing) 뿐만 아니라 최근 '잘 늙고 잘 죽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덩달아 노화와 죽음에 관한 책들이 국내외에서 자주 선보이고 있다. 생물학자이자 작가이며 주로 진화생물학, 사회생물학 분야의 연구를 해온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조너선 실버타운 교수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늙는다는 건 우주의 일(The science of life span & aging)'을 펴냈다. <br/><br/><br/> <br/><br/><br/>최고의 요리사는 신선한 식재료에 다양한 양념과 향신료를 사용해 맛난 요리를 만들어낸다. <br/><br/><br/> <br/><br/><br/>작가인 그는 책의 원제에서 보듯이 노화와 죽음과 관련한 최신 과학 연구 성과란 재료에다 그리스·로마신화, 문학, 역사, 그리고 옛 현인들의 사유를 양념과 조미료로 버무려 감칠맛 나는 실버과학 에세이를 우리들에게 선사했다. <br/><br/><br/> <br/><br/><br/>모든 생물은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생명체의 죽음을 개체의 소멸로 본다면 박테리아처럼 무성생식하는 생물에게 죽음은 없다. 박테리아는 하나가 둘로 분열하는 이분법으로 영원히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br/><br/> <br/><br/><br/>인간도 번식을 통해 자손에게 자신의 유전자 일부를 지구상에 남길 수 있다. 생명의 본체를 유전자로 보고 이 유전자 보전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성생식 동·식물도 개체는 사라지지만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셈이다. <br/><br/><br/> <br/><br/><br/>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노화와 죽음에 저항한다. 최근의 일이 아니라 진시황과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노화와 죽음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를 구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로 열정적이다. 과학자들은 405년을 사는 대양백합조개, 4789살의 브리슬콘소나무, 1만1700살로 추정되는 크레오소트부시의 장수에 얽힌 비밀에 도전하고 있다. <br/><br/><br/> <br/><br/><br/>저자는 몸집이 크면 생물은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몸집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r/><br/><br/> <br/><br/><br/>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적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보다는 당시 주위에서 흔히 보았던 동물의 수명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았다. <br/><br/><br/> <br/><br/><br/>물론 이런 명제가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땅속에서 사는 매우 작은 설치류인 벌거숭이두더쥐는 설치류 중 가장 큰 캐피바라보다 두세 배 오래 산다. <br/><br/><br/> <br/><br/><br/>타조는 90kg까지 자랄 수 있으며 포획상태에서 50년까지 산다. 아프리카회색앵무는 몸무게가 타조의 200분의 1인 450g밖에 안 나가는데도 타조만큼 오래 산다. 몸집이 수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와 함께 포식자의 위험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장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br/><br/><br/> <br/><br/><br/>땅속에 살거나 날 수 있는 능력 이외에도 자신을 맛없게 만드는 동식물의 화학적 방어수단, 겨울잠, 땅위의 포식자를 피해 나무 위에서 생활하기, 거북이의 등 껍데기 등도 장수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br/><br/><br/> <br/><br/><br/>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슬로푸드, 느린 삶이 유행하고 있다. 저자는 "빨리 살면 일찍 죽고 느리게 살면 늦게 죽는다는 법칙이 모든 생물에게 적용되는 듯하다."고 이야기한다. <br/><br/><br/> <br/><br/><br/>삶의 속도는 대사 속도와는 거의 또는 전혀 무관하며 세대가 지나가는 속도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체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다. 인간은 삶의 속도가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등 친척 영장류의 삶의 속도보다 느리다. <br/><br/><br/> <br/><br/><br/>인간은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나무 위의 삶을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처럼 느린 삶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초기 조상이 높은 성인 사망률에서 벗어난 덕택이다. <br/><br/><br/> <br/><br/><br/>저자는 여기에다 포유류는 뇌가 클수록 오래 살며 우리의 느린 삶은 빠른 두뇌회전 덕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수명이 200년 사이 두 배로 훌쩍 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br/><br/><br/> <br/><br/><br/>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티토노스(제우스에게 영생을 달라고 청하면서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잊어 늙은 채로 지내야 하는 운명에 놓인 신화 속 인물)를 뛰어넘어 영원히 젊음을 간직할 수 있는 두뇌와 과학을 손에 넣은 것은 아니다. 노화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br/><br/><br/> <br/><br/><br/>예를 들면 젊었을 때는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다가 늙었을 때는 병을 일으키는 이중적 성격을 띤 유전자도 있다. 특정 환경에서 장수하는 생물은 환경이 바뀌면 더 빨리 죽을 수 있다. 아무리 장수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났더라도 이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번식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br/><br/><br/> <br/><br/><br/>이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수명과 노화와 관련한 역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br/><br/><br/> <br/><br/><br/>이 책에는 수명이 다른 생물도 암 발생률은 비슷하다는 피토(Peto)의 역설, 노화 속도는 정해져 있는데 인류의 수명이 증가했다는 장수 역설, 노화가 용인되고 폐경이 선호되는 자연선택의 역설, 한 번에 많이 낳고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유리함에도 모든 생물이 그 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회(單回)번식의 역설 등은 죽음과 노화의 최후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만 할 수수께끼들이다. <br/><br/><br/> <br/><br/><br/>이 책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티토노스는 불멸이라는 제우스의 저주스런 선물에서 벗어나 '죽을 능력을 지닌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따라서 오래 살고 싶다면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연장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19.txt

제목: 포스코청암상 수상자 선정  
날짜: 2016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226122814619  
ID: 01100301.2016022612281461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포스코청암재단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과학상에 조윤제(사진) 포스텍 교수를, 교육상과 봉사상에는 금오공업고등학교와 라파엘클리닉을 각각 선정했다. <br/> <br/>과학상에 선정된 포스텍 조윤제 교수는 암과 같은 종양을 억제하는 단백질 및 단백질복합체의 구조를 규명하고,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손상된 DNA를 인식하고 정상 유전자로 치유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밝혀낸 과학자다. 조교수는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미닌 단백질의 작용도 밝혀냄으로써 암 치료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상에는 1973년 설립이래 산업발전에 기초가 되는 기계, 정밀, 가공, 측정 등 뿌리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을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경북 구미의 금오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됐다. 금오공고는 최근에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봉사상에 선정된 라파엘 클리닉은 의료 소외계층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진료소를 운영해 인간존중과 생명보호,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라파엘 클리닉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 1997년 설립돼 2012년 국가인권회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br/> <br/>2016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은 3월 3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0.txt

제목: 요실금, 방치하지 말고 적기에 치료해야  
날짜: 2016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222124342681  
ID: 01100301.201602221243426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타워비뇨기과과 광진점 김명준 원장 <br/><br/><br/> <br/><br/>  <br/><br/><br/> <br/><br/>요실금클리닉을 운영하다보면 안타깝고도 흐뭇한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얼마 전 요실금수술을 받으시고 이제는 손녀랑 마음껏 줄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해하시던 60대 할머니부터 요실금 때문에 계모임, 여행 한번 맘껏 못했다면서 하소연 하던 40대 아주머님까지 남몰래 고민 아닌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간단한 치료만 하면 얼굴을 활짝 피고 맘껏 웃으면 훨씬 젊어질텐데...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br/><br/><br/> <br/><br/>1. “요실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br/><br/><br/> <br/><br/>요실금은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요실금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질환 못지않게 당사자를 괴롭히는 질환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시원하게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도 요실금을 “사회적인 암”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적인 요실금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br/><br/><br/> <br/><br/>요실금은 아주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요즘의 요실금 수술은 과거와 달리 간단한 국소마취만으로 30분이면 통증없이 수술이 끝나고, 2-3시간 지나면 회복이 되며, 입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실금 수술을 결심한 분들 대부분이 전에 수술한 분들의 권유로 수술할만큼 수술한 분들의 90%이상이 수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한 분들은 딴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즘 웰빙 시대에 평생을 요실금으로 계속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결심과 수술로 전혀 다른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은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r/><br/><br/> <br/><br/>2. “수술을 안하고도 요실금을 치료할수 있나요? <br/><br/><br/> <br/><br/>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되는 요실금이지만, 많은 분들이 수술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의 약한 요실금의 경우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체외자기장치료 등을 꾸준히 하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출산 후 예방적 목적으로 위의 치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다만 최소한 6개월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으며,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에는 치료가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약한 요실금 치료나 요실금 예방이 목적인 경우에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체외자기장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은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1.txt

제목: 삼성화재 "나이 많고 아파도 보험가입"  
날짜: 2016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28125050432  
ID: 01100301.2016012812505043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화재가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과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간편하게 건강하게'를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br/> <br/>50~75세의 유병자를 타깃으로 계약자의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10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간편하게 건강하게'는 '3·2·5'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 검사(재검사) 의사소견 여부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 진단·입원 및 수술 여부 등이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먹더라도 따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 <br/> <br/>상해·질병 사망시 최고 3000만원,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비(상해·암), 입원일당(상해·질병·암)도 선택 가능하다. <br/> <br/>유병자 및 고연령 계층에 꼭 필요한 부가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전문 의료진의 전화 상담 및 3차 병원 진료 예약을 대행해 주는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 사망시 장례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br/> <br/>가입 연령 폭도 확대됐다. 기존 유병자 할증제도를 통해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br/> <br/>상해1급, 10년 만기 전기납 조건의 순수보장형 기준으로 60세 남자의 월 보험료는 6만7280원, 여자는 5만213원이다. <br/> <br/>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간편하게 건강하게' 출시를 계기로 다양한 고객 계층별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 보험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2.txt

제목: 중국 '중서의 결합' 암치료 성행  
날짜: 2016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27130406350  
ID: 01100301.20160127130406350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에서는 암치료도 중서의 결합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 의료인들이 양한방 각자 의학대로 진료하다가 한계에 부딪쳐도 다른 의학을 권하지 않는 '폐쇄적' 모습과는 다르다. <br/> <br/>전문가들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중심에 두고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중국의 통합적 의료체계는 좋은 모델 중 하나"라는 주장도 나온다. <br/> <br/>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는 "중국의 경우 암환자 치료에 서의(서양의학)치료와 중의(중국전통의학)치료를 병행하도록 기본 매뉴얼이 짜여져 있다"고 밝혔다. <br/> <br/>중국의 서의에 의한 암치료는 우리나라 양방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내용과 거의 같다. 수술요법,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요법 등 대부분 동일하다. 반면 중국 중의 의료기관에서는 암 진료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진료 양상을 보인다. <br/> <br/>중국중의과학원 산하 광안문병원의 종류(암)과 위암 매뉴얼에는 기본적인 서의 치료에다 중의치료를 결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암 수술 후, 화학치료 후, 변증과 변병에 따라 중의치료를 한다. 그 목적은 암 전이 및 재발 방지, 생존기간 연장이다. <br/> <br/>수술 후 화학치료를 진행해야 하지만 체질의 문제로 화학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화학치료를 끝낸 후 2-3년간 중약과 항암중약주사제를 결합해 치료한다. 수술 후 3-5년 새 중약탕제와 중성약 사용을 권고한다. 주요 치료가 끝난 후 2-3년 간 중약탕제와 중성약 위주로 치료하고, 3-5년사이 병세가 안정되면 약 양을 줄이거나 계절에 따라 중약 복용한다. 변증에 따라 소요산 가감, 맥문동탕, 이중탕가감, 소반하탕 합 격하축어탕 등을 사용한다. <br/> <br/>베이징중의약대학교 제2임상병원인 동방병원의 간암 매뉴얼을 보면, 초기 간암환자에게는 수술 전 몸 상태 조리, 수술 및 방사선치료 전후 재활 촉진, 재발방지, 부작용 경감치료를 실시한다. 말기간암인 경우 중약치료를 위주로 임상증상의 발전 속도 완화, 생활의 질 제고, 생존기간 연장을 이룬다. <br/> <br/>간암으로 인한 황달, 동통, 복수, 오역 구토, 출혈, 발열에 중약 복용, 자침, 약제 부착 등을 실시한다. <br/> <br/>이런 진료가 이뤄지는 것은 왕성한 임상연구활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br/> <br/>한 연구사례를 보면 국가 '10차5개년 계획' 과학기술주요항목 가운데 하나인 '폐암 생존기 종합치료방안연구'에서 586례의 3-4기 비소세포폐암환자에게 무작위 시험을 한 결과, 중서의 결합군의 생존기간이 12.03개월인 반면, 서의치료 단독군의 생존기간은 8.36개월 나타났다. 또 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 실험에서도 중약을 사용한 군은 방사선치료 완성률 84.5%, 화학치료 완성률 89.6%로 나타났다. 사용하지 않은 군 63.5%, 66.7%보다 높았다. <br/> <br/>임채선 삼대국민한의원의원 원장(복수면허자)은 "전통의학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한약처방을 기존 암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들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활동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국가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3.txt

제목: [암 치료 어디까지 왔나] 5년 암생존율 62% … 통합치료로 완치 도전  
날짜: 2016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26125219309  
ID: 01100301.2016012612521930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하나의 세포가 남아 있어도 재발해 생명을 위협하는 암. 불행히도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의 치료법은 없다. 하지만 세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치료법이 발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우리나라 5년 암생존율은 62.0%를 넘겼다. 3명 중 2명은 생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초기 암을 다스리는 수술요법, 날로 강해지는 방사선요법, 암세포의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제, 면역세포를 키우는 면역요법, 암세포에 열 가해 죽이는 온열요법, 허약해진 암 환자의 저항력을 키우는 한방요법 등을 통합적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조기에 이들 치료법을 적절히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한다. <br/> <br/> 이대목동병원의 한 의사가 방사선의료기기인 트릴로지를 이용해 암환자에게 방사선치료를 하고<br/><br/>있다. 사진 이대목동병원 제공 <br/>◆조기진단 후 처치 생존율 90% 이상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13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2만5343명이다. 2003년 보다 환자가 79.3%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9.4%이다. 2001-2005년 생존율 53.8% 대비 15.6%p 향상됐다. 과다진단 논란이 있으면서 생존율이 100%가 넘는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62.0%이다. <br/> <br/>특히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5년 생존율은 전립선암 100.6%, 갑상선암 100.6%, 유방암 97.9%, 위암 95.5%, 대장암 95.3%로 높았다. 일부 주위 장기나 인접한 조직, 림프절에 침범한 경우에도 갑상선암 100.4%, 전립선암 95.7%, 유방암 90.2%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br/> <br/>이런 높은 수치는 조기 진단에 이어진 다양한 처치의 성과였다. <br/> 서울아산병원의 김병식 교수가 복강경 위암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서울아산병원 제공 <br/>◆초기 암에는 제거 수술이 최선 = 암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에는 전통적으로 수술·방사선·항암화학요법을 널리 사용한다. 암 수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뿌리를 뽑는다는 근치수술은 암세포가 장기나 연결된 림프절에 머물러 있을 때, 한꺼번에 제거한다. 현재로서는 초기 암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위·직장·대장·소장·식도·간·췌장·유방·갑상선·폐·신장·난소암·과 흑색종, 연부조직육종, 골육종, 타액선암 등이 대상이다. <br/> <br/>또 다른 수술은 출혈과 구토증 등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켜 생명연장을 기대하는 수술이다. 이외 화학요법 등 다른 치료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암세포를 감소시키는 수술이다. 암 크기가 작을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기에 이용된다. <br/> <br/>방사선치료는 날로 기술이 발전해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효과를 얻고 있다. <br/> <br/> 서울아산병원에서 한 암환자가 방사선의료기인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br/><br/>사진 서울아산병원 제공 <br/>◆섬세해지는 방사선기 치료기술 = 암 세포가 뇌로 전이되어 생기는 두통 및 구토, 척추로 전이되어 생기는 하반신마비, 뼈로 전이되어 일어나는 극심한 통증에 특히 도움이 된다. <br/> <br/>피부암 구순암에 대한 방사선치료의 효과는 외과적 절제술과 맞먹어 림프선에 전이가 없을 경우 90-100% 완치시킬수 있다. 설암은 근접치료법으로 80% 완치율이 나타나고, 자궁암은 1기 90%, 2기에 60% 치유효과를 본다. <br/> <br/>인후암 자궁암 유방암 등 고형암은 7-8주, 림프종류는 4-5주 치료기간이 걸린다. 치료 후 폐섬유화, 심낭염, 척추신경장애 장폐색 등이 6개월에서 1년 새 나타날수 있으나 잘 대비해 치료하면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br/> <br/>방사선 치료기에는 효과가 뛰어난 양성자치료기, 토모테라피,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트릴로지, 트루빔 등이 있다. <br/> <br/>◆확산 빠른 암 잡기에는 항암치료 필수 = 화학적 항암요법은 암세포분열의 장애를 유도해 암세포를 죽인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옮겨 갔거나 수술 후 재발해 온 몸에 퍼진 암을 대상으로 한다. 약물이 혈액이나 림프선을 통해 온 몸으로 퍼지고 분열이 빠른 세포를 더 잘 파괴하기 때문에 성장이 빠른 암을 치료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항암제는 복용하거나 정맥주사 근육주사 동맥관류로 투여한다. <br/> <br/>하지만 항암요법은 강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오심, 구토, 피로, 탈모증, 조혈기능장애가 흔히 나타난다. 또 무력감, 현기증, 탈수증,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 인한 정신적 위축은 항암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심리적 대비가 필요하다. <br/> <br/>◆면역세포 투입해 기능 강화 = 면역요법은 원래의 면역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암에 대응하는 환자의 저항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보조적 치료법이다. 예를들면 면역기능을 하는 림프구를 인터류킨-2라는 물질로 자극해 활성화시키면 각종 암세포를 두루 죽이는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는 LAK(림포카인 활성 살해 세포)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LAK세포를 암환자의 몸속에 다시 넣어주는 입양면역요법이 있다. 악성 흑색종과 대장암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br/> <br/>면역요법은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거나 재발 되었을 경우 효과 있다.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은 암환자의 저하된 면역기능을 더욱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면역요법을 함께 사용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br/> <br/>면역요법에는 BGG, 인터페론, 인터류칸-2, 암괴사인자, 단세포항체, 피시비닐, 헬릭스 등이 있다. 인터페론은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br/> <br/>◆열을 가해 암세포 죽인다 = 온열요법은 암조직에 열을 가해 암을 치료한다. 전신요법은 암이 온 몸에 퍼져 있을 경우 환자를 마취시킨 후 뜨거운 공기로 체온을 섭씨 41.5%로 높여 1-2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국소요법은 장기에 머물러 있는 암(원발성) 또는 전이된 암에만 열을 높여서 치료한다. <br/> <br/>암조직은 열에 민감하고 혈관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밖으로부터 받은 열을 빨리 발산하지 못해 쉽게 열이 오른다. 결국 세포단백질 세포막합성효소 염색체를 변질시켜 암세포를 죽게 만든다. 전신요법은 열을 더 올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소요법은 열 발생장치가 많이 개발되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열 발생장치로는 마이크로파 초음파 고주파 등이 있다. <br/> <br/>온열요법과 방사선요법을 같이 사용하면 치료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br/> <br/>◆암치료 부작용 해소에는 한방요법 = 한방암치료법은 다양한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동서의학을 통합해 암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br/> <br/>암 수술 전에 쓰이는 한약은 환자의 정기를 돕고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고, 수술 후에 쓰이는 한약은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어지는 방사선요법과 화학요법을 받기에 적절한 신체 여건을 만들어 준다. <br/> <br/>방사선요법과 한약요법을 같이 사용하면 방사선치료의 소화기와 조혈계통의 후유증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방사선치료 효과를 다지고 재발 및 전이를 예방해 장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항암제의 부작용과 독성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br/> <br/>전성하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통합종양내과 진료과장은 "하나의 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현실에서 환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 암 진행정도에 따라 적절한 통합치료를 선택하는게 최선"이라며 "암 확산 억제와 신체를 살릴 가치있는 치료법들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4.txt

제목: 암 발생 촉발시키는 스트레스  
날짜: 2016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25130656549  
ID: 01100301.201601251306565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몸 안의 면역체계가 느슨해지고, 약해진 면역체계로는 암세포가 발생 확장하는 것을 막기 역부족인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br/> <br/>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을 관장하는 시상하부(視上下部)가 콩팥 위에 있는 부신(副腎)에 스트레스 대처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한다. 이에 평소보다 20배나 많은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외부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게 신체 각 부위를 자극해 흥분시킨다. 이로써 혈압과 맥박수, 호흡수를 올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한다. <br/> <br/>그 결과 근육에 많은 혈액을 공급하는 반면 다른 내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은 줄어든다. 위장관의 운동을 멈추게 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줄여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등의 급하지 않은 작업을 모두 억제한다. 이 때 암 발생을 막는 면역체계의 활동도 억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체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T림프구. 특히 자연살상세포는 우리 몸 안 곳곳을 돌아 다니며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 노화되거나 암세포로 변형된 세포를 찾아내 죽이고 청소한다. 그런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연살상 세포 수는 물론 기능도 약화되어 암 발생 감시체계가 허물어지게 된다. <br/> <br/>백남선 전 원자력병원장은 '암 알아야 이긴다'는 저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 발생의 주범일수도 있다"며 "더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일수록 지나친 흡연, 음주 등 암유발인자에 노출 될 위험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5.txt

제목: [암 진단 어디까지 왔나] 유전자검사 건보적용 … 맞춤형 진료 확대  
날짜: 2016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25130655894  
ID: 01100301.2016012513065589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건강보험당국은 암 질환의 처방과 진단 등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암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논란이 있지만) 비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검사도 허용된다. CT, MRI, 양전자 단층촬영(PET)의 기술 발전은 조기 암 진단의 수준을 높여 준다. 이들 진단기기들로 확인된 암세포를 조기에 처치하므로써 암환자의 생존율은 더욱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br/> <br/>하지만 유전자검사나 진단기기를 통해 특정 암 관련 유전자나 암세포를 발견하더라도 음주 흡연 운동 등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발병을 예방할 수도 재발을 막을 수 없다. <br/> 한 의료기관 연구소에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 다이오진 제공 <br/>◆조기에만 발견하면 위암 자궁암 등은 90%이상 치유 = 우리나라 암질환자는 연 110만명이 넘는다. 연간 새로 암으로 진단받는 사람도 약 22만명이나 된다. 그 수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암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전문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br/> <br/>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아직도 2014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6000여명에 이르고, 그에 따른 진료비 지출만 4조5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암으로부터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암 예방을 통한 방법이 최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br/> <br/>현재 우리나라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특정암을 국가차원에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암은 40세이상 남녀에게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한다. 간암은 만 40세이상 성인 중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 6개월 주기로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한다. 대장암은 60세이상 남녀에게 1년 주기로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한다. 유방암은 40세이상 여성에게 2년 주기로 유방촬영술을 실시한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다. <br/> <br/> 자기공명영상기(MRI)로 암 검진을 하는 모습.사진 이대목동병원 제공 <br/>백남선 전 원자력병원장은 '암 알아야 이긴다'는 저서에서 "조기에만 발견하면 위암, 자궁암, 대장암, 유방암은 90%이상 치유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더욱이 현미경, 엑스레이에 이어 최근에는 CT, 초음파, MRI, 내시경 PET 등이 미세한 암까지 발견해 암의 조기진단은 그만큼 수월해 졌다. PET는 암세포가 성장해 모양이 변하기 전에 신진대사의 차이로 암을 검진하는 장비이다. 특히 조기에 암전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 <br/> <br/>◆조기검진보다 식습관 예방활동이 더 중요 = 이런 검사들은 모두 이미 생긴 암세포를 발견하는 것으로 조기치료로 이어지는 만족도가 있다. 하지만 그 치료 또한 만만치 않은 탓에 의학계에서는 유전자검사를 암진단에 적용하는 연구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br/> <br/> <br/> <br/>그 결과 2014년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적용을 시켰다. 이어 올해부터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등을 위해 20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직결장암 치료항암제에 맞는 NRAS 유전자 확인을 위한 검사, 비소세포폐암 치료항암제에 맞는 ALK유전자 확인을 위한 검사, 만성 골수 증식질환과 관련된 JAK2 유전자 진단,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된 CEBPA 유전자 검사 등이다. 이들 영역은 특정 약제의 목표가 되는 변이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이다. 유전자검사가 치료 진단에 도입된 사례이다. <br/> <br/>일반 검진 사장에서의 유전자검사 도입도 시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8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검사를 허용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 유전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이오진 측은 "검출된 유전자상의 위험 소인에 따라 암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나 지연시키는 활동을 한다면 암 예방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반면 김열 국립암센터 부장은 "특정 변이유전자가 특정 암을 유발한다는 뚜렷한 유전자검사 연구 성과들을 더 쌓으면서 일반검진으로 신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조기검진이 만능이 아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민선 더맑은내과 원장은 "검진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일 뿐. 건강문제는 검진으로 발견하기 수년 전부터의 생활태도, 식생활, 마음가짐,유전적 성향에 따라 서서히 진행된 것"이라며 "검진에 목숨 걸지 말고 지금부터 건강(생활)을 관리하라"고 권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6.txt

제목: 라이프플래닛, 모바일 방카시장 진출  
날짜: 2016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25130644873  
ID: 01100301.2016012513064487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인터넷 전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모바일 방카슈랑스 시장에 전격 진출한다. <br/> <br/>라이프플래닛은 25일 IBK기업은행과 제휴계약을 맺고 모바일 방카슈랑스 전용 어린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바일 채널 강화에 나선 IBK기업은행과 함께 시장을 선도하겠는 것이다. <br/> <br/>모바일 방카슈랑스는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고,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합리적이다. <br/> <br/>이번에 출시된 '(무)라이프플래닛b어린이보험'은 가장 핵심적인 보장인 암, 재해, 입원, 수술, 골절 등 어린이 5대 보장 급부를 보장한다. <br/> <br/>만기환급률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남아 0세 기준 30세 만기, 전기납, 순수보장형,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비 1억원 기준으로 가입 시 월 보험료 5370원으로 저렴하다. <br/> <br/>함께 출시된 '(무)라이프플래닛b어린이저축보험'은 최초의 모바일 교육자금 저축보험으로, 자녀의 학자금, 대학 등록금, 유학비 등 목적에 따른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br/> <br/>이 상품들은 IBK기업은행의 모바일앱인 'i-ONE뱅크'의 상품가입 메뉴인 '보험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앱에 접속해 보험몰 내 관심상품을 선택한 후, 부모 및 자녀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면 보험료 확인부터 가입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br/> <br/>라이프플래닛 이학상 대표이사는 "핀테크 시대에 발맞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인터넷 생보업계 1위(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의 위상에 걸맞게 혁신적인 모바일 방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7.txt

제목: IT·화학기업들 바이오 사업 진출  
날짜: 2016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21125644186  
ID: 01100301.20160121125644186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IT 화학 등 다양한 배경의 기업들이 바이오 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br/> <br/>LG경제연구원 보고서 '바이오 기술 대중화 시대 열리고 있다'에 따르면 바이오제약 기업 외에 일루미나 덱스콘 같은 유전자 분석 기업이 바이오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구글 IBM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등 IT기업과 듀폰 다우케미칼 바스프 바이엘 DSM 같은 화학기업 등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br/> <br/>삼성그룹도 바이오사업을 신수종사업의 하나로 삼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GS칼텍스는 바이오부탄올 기술 개발에 나서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br/> <br/>이들 기업들은 바이오 사업이 식량부족·고령화 등 미래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선제적으로 진입시 고수익을 상당기간 창출할 수 있고 기업 내 보유 역량을 활용할 여지가 많다는 장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br/> <br/>듀폰은 화학 회사라기 보다 바이오 회사라고 불릴 정도로 바이오 중심으로 변화했다. 최근 다우 케미칼과 합병도 바이오 사업에서의 역량 확보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br/> <br/>일본기업인 후지필름은 최근에 차세대 사업으로 바이오를 선정했다. 제약회사와 건강진단장비회사, 유도만능줄기세포회사 등을 인수했다. <br/> <br/>미국 바이오 기술 기업들의 주식이 2013년 대비 최근 2배 정도 상승했다. 2014년 바이오 기술 벤처 투자 금액이 60억달러로 소프트웨어에 이어 2번째로 많다. <br/> <br/>중국기업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중국 선전에서 창업한 BGI는 2013년 세계적 DNA 염기 서열 분석회사인 컴플리트 제노믹스를 1억1800만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미국 빌게이츠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게놈 염기 서열, 암 게놈 프로젝트 등을 진행중이다. <br/> <br/>바이오는 다른 분야ㆍ기술과 용합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험실 단계이지만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활용해 물질을 제조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br/> <br/>MIT 벨처 교수는 두께가 10나노미터에 불과한 'M13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조작해 특정 물질이 달라붙도록 했다. <br/> <br/>이런 바이러스를 모아 2차 전지 재료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 나노 규모로 물질 구조를 조절할 수 있어 기존 대비 10개 출력을 낼 수 있는 2차전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br/> <br/>유기돈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되면 세계 바이오 시장이 반도체 등 국내 3대 수출 품목모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 미래 신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이오 기술 분야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8.txt

제목: 경북도, 3대 가속기 기반 산업화 본격 착수  
날짜: 201512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1231122624151  
ID: 01100301.201512311226241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경북도가 3대 가속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약개발과 암치료, 질병조기진단, 신소재, 특화작물 신품종 개발 등의 가속기 기반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br/><br/><br/> <br/><br/><br/>경북도는 1일 세계에서 5번째로 지난 1994년 12월 포스텍 부설 가속기연구소에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 12월 양성자가속기에 이어 최근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갖춰 기초·응용연구에서 기술 산업화까지 세계적인 거대과학 기반을 갖춤에 따라 본격적인 가속기 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3대 가속기 구축에는 3세대 2500억원, 4세대 4038억원, 양성자 3143억원 등 9681원이 투자됐다. <br/><br/><br/> <br/><br/><br/>도는 기반구축, 사업화 지원, 인재양성 등 3대 분야 10대 핵심사업을 발굴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br/><br/><br/> <br/><br/><br/>10대 핵심사업은  △바이오,의료산업을 위한  '가속기 기반 R&DB 단지 조성', △신약개발·질병조기진단. 암치료 연구와 양성자 암치료 연구,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동차·기계 부품 등 핵심 부품 소재개발을 지원하는 첨단 신소재 산업, △가속기 구축사업 노하우 활용한 첨단연구장비 국산화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화작물·문화재 성분분석사업, △전문대학원 및 마이스터고 설립 등이다. <br/><br/><br/> <br/><br/><br/>경북도는 1월중 전국 산학연관과 23개 시·군을 아우르는 '가속기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2017년 국비 반영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벤처기업 40개, 총매출액 4조원, 고용창출 1만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br/><br/><br/> <br/><br/><br/>방사광가속기는 과학 실험이나 산업의 가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광속에 가까운 정도로 가속시킨 전자·양전자 등 하전입자를, 싱크로트론의 일종인 저장링속에서 오랫동안 돌게 하여 방사광(복사광)을 방출시키는 시설이다. 사람에 비유할 때 방사광가속기는 물질을 관찰하는 '눈'에 해당하고, 양성자가속기는 물질을 조작하는 '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29.txt

제목: '보험다모아' 문 연 지 한달 … 20만명 클릭  
날짜: 201512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1231122611580  
ID: 01100301.20151231122611580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다양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한꺼번에 비교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 올려진 보험상품이 한달 만에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다모아가 문을 연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달간 보험다모아를 방문한 사람도 20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다모아는 30일 출범 한달을 맞았다. <br/> <br/> <br/>2015년 12월 31일 보험다모아를 공동 주관하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온라인보험슈퍼마켓 시연회에 참석한 뒤 한달 사이에 42개(20%)의 신규 보험상품이 보험다모아에 추가로 등록됐다. 이로써 지난 30일 현재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단독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여행자보험 등 6종 249개가 이름을 올렸다. 보험다모아가 문을 연 지난달 30일에는 등록된 보험상품 수가 217개였다. <br/> <br/>판매채널별로 살펴보면, 온라인(CM) 상품이 기존 78개에서 86개로 8개, 텔레마케팅(TM) 등 기타 상품이 85개에서 110개로 25개 증가했다. 당초 85개였던 방카슈랑스 상품은 1개가 줄었다. 또 2015년 11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 자정까지 보험다모아를 찾은 방문자 수는 19만58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장 첫날 약 6만명이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찾은 이후 하루 평균 7000여명이 접속한 셈이다. 전체 방문자 중 PC를 통한 접속이 12만2786명으로 62.7%를 차지했지만, 모바일을 통한 접속도 7만3022명으로 37.3%에 달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장 초기인데도 모바일 접속자 비중이 당초 예상보다 높다"면서 "편리한 접근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br/> <br/>접속자들이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찾아오는 경로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60.3%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7%인 가운데,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등의 기타 방식이 29%로 높은 것도 주목받고 있다. <br/> <br/>보험다모아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보험은 보장성보험이었다. 검색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는데, 보험업계는 "보장성보험이 암·질병·종신·상해 등 9종의 보험으로 나뉘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자동차보험이 단일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7.5%로 검색순위 2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보험다모아 등재 상품 중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몰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단독실손의료(14.8%), 저축성(11.1%), 연금(11.5%), 여행자보험(3.6%)의 순이었다. <br/> <br/>보험다모아에 접속한 19만5836명 중 상품을 비교검색한 뒤 해당 보험회사의 가입 홈페이지로 이동한 경우는 6만3713건이었다. 접속자의 3분의 1 가량이 가입 여부를 검토했다는 뜻이다.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이동으로 연결된 사례는 보장성보험이 45%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보험이 28.9%로 2위였다. <br/> <br/>보험다모아가 개장 한달 만에 접속자 수가 2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관심을 모으자 보험사들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br/> <br/>메리츠화재는 2015년 12월 29일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온라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PC와 모바일로 언제든 가입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판매수수료가 없어 보험료가 오프라인 채널 대비 평균 16.2% 저렴하다. <br/> <br/>롯데손해보험도 2015년 12월 28일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온라인 전용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가입 가능한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는 오프라인 채널 대비 평균 17.6% 저렴하게 설계됐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KB손해보험도 새해 초부터 온라인 전용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생·손보협회는 내년에 보험다모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서비스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br/> <br/>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별 할인·할증요율 등을 반영한 실제 보험료 비교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암보험·어린이보험도 동일 보험금 및 보장범위 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비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0.txt

제목: [유방,갑상선질환, 이젠 제대로 상담받자~]예약제 진료 등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치료효과를 높인다!  
날짜: 2015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12626392  
ID: 01100301.20160107212626392  
카테고리: 사회  
본문: 요즘 부쩍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게 혹시 나도 갑상선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본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럴 땐 병원이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여유롭게 환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는 없을까. 수원 영통 아름다운향기유외과 권수범 원장은 “<span class='quot0'>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이미 절반의 성공</span>”이라고 강조한다.<br/><br/><br/> <br/><br/><br/> <br/><br/><br/> <br/><br/><br/>여성암1,2위 유방,갑상선암에 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br/><br/><br/>“실제로 피곤하다고, 갑상선질환이 아닐까 하고 찾아오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로의 원인은 스트레스나 신체기관의 이상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갑상선 기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파악되려면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권수범 원장은 암 치료는 다양한 진료과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종합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환자들은 현실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 진료시간과 자신의 아픔이 충분히 공감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쉬워한다고 했다.? <br/><br/><br/>정확한 자신의 상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환자가 의지를 다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치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도 연결이 되는 만큼, 개인병원이라고 한다면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암 1,2위인 유방,갑상선암은 더욱 중요하게, 정확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원장의 설명이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최신장비를 활용한 검사와 풍부한 임상경험 중요 <br/><br/><br/>환자들 가운데는 간혹 갑상선기능저하나 항진증이 암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갑상선암은 갑상선 기능과 상관없이 갑상선결절(혹)에서 발생되는 암이다. 갑상선결절의 상당수가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결절이 갑상선암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초음파를 통한 세포검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추이를 지켜볼지, 수술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의사의 몫이다. <br/><br/><br/>유방의 경우도 마찬가지. 유방암뿐만 아니라 유방성형, 유방분비물, 함몰유두, 남성유방암 등 다양한 증상과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 유방의 혹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초음파촬영을 하는데, 탄성초음파는 암의 딱딱한 정도까지 파악이 가능해 별도의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도 혹인지, 암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줄어드는 셈이다. 유방의 전체적인 모양, 석회화 정도 파악을 위해 유방엑스레이촬영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아픔과 두려움을 공감한다는 권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 압박의 통증을 줄여주는 자동 소프트기능의 유방촬영기를 통해 촬영의 공포를 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 <br/><br/><br/>협진시스템으로 신중한 치료계획 수립, 진정한 아름다움 되찾아줘야??? <br/><br/><br/>해상도가 높은 판독용모니터로 치밀유방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작은 혹이라도 놓치지 않는 권 원장은 “좋은 장비가 가져다주는 정확한 진단은 환자의 신뢰로 이어진다.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장비와 함께 이를 활용할만한 능력과 다양한 임상경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운향기유외과는 서울아산병원 외과와 유방내분비외과 오랜 근무경험을 살려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학병원과의 협진서비스체계도 구축, 치료성공률을 높인다. 차근차근한 설명으로 환자가 가진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권 원장은 “<span class='quot0'>환자가 아픔을 극복하고, 오히려 예전에는 몰랐던,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span>”이라고 했다. <br/><br/><br/>이젠 갑상선,유방에 관한 넘쳐나는 정보들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예약제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곳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워가야 할 때다. <br/><br/><br/> <br/><br/><br/> <br/><br/><br/>도움말 아름다운향기유외과 권수범 원장<br/>SQ: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1.txt

제목: [유방,갑상선질환, 이젠 제대로 상담받자~]예약제 진료 등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치료효과를 높인다!  
날짜: 2015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1215124616834  
ID: 01100301.2015121512461683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요즘 부쩍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게 혹시 나도 갑상선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본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럴 땐 병원이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여유롭게 환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는 없을까. 수원 영통 아름다운향기유외과 권수범 원장은 “<span class='quot0'>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이미 절반의 성공</span>”이라고 강조한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여성암1,2위 유방,갑상선암에 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br/><br/><br/>“실제로 피곤하다고, 갑상선질환이 아닐까 하고 찾아오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로의 원인은 스트레스나 신체기관의 이상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갑상선 기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파악되려면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권수범 원장은 암 치료는 다양한 진료과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종합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환자들은 현실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 진료시간과 자신의 아픔이 충분히 공감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쉬워한다고 했다.  <br/><br/><br/>정확한 자신의 상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환자가 의지를 다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치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도 연결이 되는 만큼, 개인병원이라고 한다면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암 1,2위인 유방,갑상선암은 더욱 중요하게, 정확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원장의 설명이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최신장비를 활용한 검사와 풍부한 임상경험 중요 <br/><br/><br/>환자들 가운데는 간혹 갑상선기능저하나 항진증이 암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갑상선암은 갑상선 기능과 상관없이 갑상선결절(혹)에서 발생되는 암이다. 갑상선결절의 상당수가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결절이 갑상선암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초음파를 통한 세포검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추이를 지켜볼지, 수술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의사의 몫이다. <br/><br/><br/>유방의 경우도 마찬가지. 유방암뿐만 아니라 유방성형, 유방분비물, 함몰유두, 남성유방암 등 다양한 증상과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 유방의 혹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초음파촬영을 하는데, 탄성초음파는 암의 딱딱한 정도까지 파악이 가능해 별도의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도 혹인지, 암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줄어드는 셈이다. 유방의 전체적인 모양, 석회화 정도 파악을 위해 유방엑스레이촬영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아픔과 두려움을 공감한다는 권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 압박의 통증을 줄여주는 자동 소프트기능의 유방촬영기를 통해 촬영의 공포를 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 <br/><br/><br/>협진시스템으로 신중한 치료계획 수립, 진정한 아름다움 되찾아줘야    <br/><br/><br/>해상도가 높은 판독용모니터로 치밀유방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작은 혹이라도 놓치지 않는 권 원장은 “좋은 장비가 가져다주는 정확한 진단은 환자의 신뢰로 이어진다.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장비와 함께 이를 활용할만한 능력과 다양한 임상경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운향기유외과는 서울아산병원 외과와 유방내분비외과 오랜 근무경험을 살려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학병원과의 협진서비스체계도 구축, 치료성공률을 높인다. 차근차근한 설명으로 환자가 가진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권 원장은 “<span class='quot0'>환자가 아픔을 극복하고, 오히려 예전에는 몰랐던,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span>”이라고 했다. <br/><br/><br/>이젠 갑상선,유방에 관한 넘쳐나는 정보들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예약제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곳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워가야 할 때다. <br/><br/><br/> <br/><br/><br/> <br/><br/><br/>도움말 아름다운향기유외과 권수범 원장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2.txt

제목: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12102830  
ID: 01100301.2016010721210283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br/><br/>타워비뇨기과 광진점 김명준 원장 <br/><br/><br/> <br/><br/>처음 내원하신 할아버지가“소변줄기도 약하지만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 라고 말하신다.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수지 검사 등을 마친 후 전립선에 대해 설명과 진단 후 진료실 밖으로 나가시려는 순간,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한 말씀 하신다.“이 영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룻밤에 네댓 번씩 잠을 깨는데 옆에서 잠을 못 자겠어.” “나도 자다가 계속 화장실을 가요. 이 영감하고 같이 약 먹어도 되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내외가 잠자리 마다 힘들었을 기간이 그려진다. 빈뇨, 야간뇨 는 남성 여성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남성의 경우 전립선비대증과 그로 인한 방광 자극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과민성방광이 원인이 될 수 있다. <br/><br/><br/>집에서는 화장실을 자유로이 갈 수 있지만,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외출시에는 화장실을 찾느라 불안해 진다. 마렵지도 않지만 실수라도 할까봐 미리 화장실을 가게 되고 얼마 없는 소변을 쥐어짜며 보게 된다. 고속버스라도 타면 휴게소에 도착하자 마자 부부 내외는 곧장 화장실로 향한다. 겨우 요절박은 해결하지만, 할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볼 일을 마치고 나오고, 할머니는 급히 화장실을 가는 동안 속옷을 적셨다. <br/><br/><br/>저녁에 약주라도 하게 되면 5분, 1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찾게 되고 막상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이 찔금 밖에 안 나온다. 새벽녘이 되니 아래배가 아파오고 불룩하다. 오줌보가 터질 것 같은 느낌에 식은땀도 절로 난다. 근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니 의사가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찼다며 요도에 관을 넣어 소변을 빼내고 그 양이 너무 많아, 일주일 이상을 소변줄을 유지해야 될 지경이다. <br/><br/><br/>전립선비대증과 과민성방광은 이렇듯 남성과 여성의 잠자리를 시달리게 하고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 시킨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암과 증상만으로 구분이 어려워, 나이가 들면 그러려니 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노인정 사람들 다 그래”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전립선 검사를 통해 암과 구별해야 하고 치료 및 예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성의 과민성 방광의 경우, 방광염과 증상이 비슷하여 불필요하게 방광염 관련 약만 복용할 것이 아니라 비뇨기과에 방문해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3.txt

제목: [IPO 지상중계 │안트로젠] 줄기세포 특화 … 희귀·난치병 치료 전문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11909065  
ID: 01100301.2016010721190906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안트로젠은 설립 15년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생산 전문 기업이다. 줄기세포는 자신과 동일한 세포를 복제·생산하는 세포로 뼈, 신경, 근육, 연골 등으로 분화할 수 있다. 면역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사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 질환 및 암 등 분야에서 치료 목적으로 이용가능하다. <br/> 안트로젠은 지방유래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 중 하나인 지방유래줄기세포는 체내에 다량 존재해 채취는 물론, 체외 배양도 비교적 쉬운 편. 단위조직당 줄기세포의 수득률이 높으며 안전하고 다양한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특히 크론성 누공 치료제인 '큐피스템'은 안트로젠의 대표 지방유래줄기 세포 활용 제품이다. 자가 지방유래줄기세포 치료제로서 희귀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중 유일하게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전 세계 최초 지방줄기세포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큐피스템은 희귀병인 크론성 누공 환자에게 큰 희망인 셈이다. <br/> <br/>안트로젠은 지난해 18억3000만원의 매출액과 14억10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27억4000만원에 손실액은 4000만원으로 줄었다. <br/> <br/>안트로젠의 최대 강점은 줄기세포 생산 부문의 특화된 기술력. 특히 줄기세포 수를 늘리는 계대 배양 과정에서 면역 조절이 강화된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br/> <br/>현재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 △심재성 2도 화상 치료제 △힘줄 손상 치료제는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또 수포성 표피 박리증 치료제와 △크론병 치료제는 임상 1상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치료제는 2017~2018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br/> <br/>이성구(사진) 안트로젠 대표는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의 제품화에 속도를 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br/> <br/>안트로젠은 연내 코스닥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주식수는 120만주며 주당 희망 공모가는 2만3000원~2만8000원이다. <br/> <br/>276억~336억원 규모의 조달 자금은 연구소·생산 시설 투자 및 임상 진행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일과 3일 수요예측으로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7일과 8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 후 16일쯤 코스닥에 입성한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4.txt

제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오늘 개장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11830450  
ID: 01100301.20160107211830450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본 뒤 가입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웹사이트가 30일부터 공식 운영된다. <br/> <br/>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3일 시험가동을 시작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본격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br/> <br/>보험다모아에는 생명보험사 20곳, 손해보험사13곳이 참여해 단독실손(25개), 자동차(11개), 여행자(9개), 연금(35개), 보장성(94개), 저축성(43개) 보험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6종의 217개 상품을 등재했다. <br/> <br/>일부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중이어서 등록 상품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br/> <br/>소비자들이 보험다모아에 접속하면 보험료와 보장금액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br/> <br/>원하는 상품에 가입하려면 '온라인 가입'을 누르고 체결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br/> <br/>생명·손해 보험협회는 추후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 제공하고, 암보험과 어린이보험 상품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br/> <br/>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고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5.txt

제목: 요실금, 간단한 수술로 완치 가능하다.!  
날짜: 2015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10831340  
ID: 01100301.2016010721083134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타워비뇨기과과 광진점 김명준 원장 <br/> <br/><br/><br/> <br/><br/>  <br/> <br/><br/><br/> <br/><br/>요실금클리닉을 운영하다보면 안타깝고도 흐뭇한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얼마 전 요실금수술을 받으시고 이제는 손녀랑 마음껏 줄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해하시던 60대 할머니부터 요실금 때문에 계모임, 여행 한번 맘껏 못했다면서 하소연 하던 40대 아주머님까지 남몰래 고민아닌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간단한 치료만 하면 얼굴을 활짝 피고 맘껏 웃으면 훨씬 젊어질텐데...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br/> <br/><br/><br/> <br/><br/>1. “요실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br/> <br/><br/><br/> <br/><br/>요실금은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요실금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질환 못지않게 당사자를 괴롭히는 질환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시원하게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도 요실금을 “사회적인 암”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적인 요실금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br/> <br/><br/><br/> <br/><br/>요실금은 아주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요즘의 요실금 수술은 과거와 달리 간단한 국소마취만으로 30분이면 통증없이 수술이 끝나고, 2-3시간 지나면 회복이 되며, 입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실금 수술을 결심한 분들 대부분이 전에 수술한 분들의 권유로 수술할만큼 수술한 분들의 90%이상이 수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한 분들은 딴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즘 웰빙 시대에 평생을 요실금으로 계속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결심과 수술로 전혀 다른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은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r/> <br/><br/><br/> <br/><br/>2. “수술을 안하고도 요실금을 치료할수 있나요? <br/> <br/><br/><br/> <br/><br/>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되는 요실금이지만, 많은 분들이 수술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의 약한 요실금의 경우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체외자기장치료 등을 꾸준히 하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출산 후 예방적 목적으로 위의 치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다만 최소한 6개월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으며,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에는 치료가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약한 요실금 치료나 요실금 예방이 목적인 경우에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체외자기장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은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6.txt

제목: [현장스케치-스마트힐링센터]“우리도 스마트 기기로 힐링한다！”  
날짜: 20151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10302104  
ID: 01100301.20160107210302104  
카테고리: 문화  
본문: 인생 100세 시대. 사회생활을 마무리하고 기나긴 노년을 살아가야 한다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겪게되는 노화는 신체의 구조는 물론 기능, 지적 능력의 변화, 감각과 지각 능력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도구나 기기의 사용이 둔화되기 마련이다. 외국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이 진행되면서 스마트 에이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첨단기술로 노인의 능력을 확장해 줄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휠스, 케어로봇 등이 그것인데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한 스마트힐링센터에서도 스마트 에이징을 체험할 수 있다. <br/> <br/><br/><br/> <br/><br/> <br/><br/><br/> <br/><br/><br/>테블릿 PC, 키오스크 등 첨단기기 체험 <br/><br/><br/>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스마트힐링센터에는 열 댓 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루고 있었다. 블록맞추기, 피아노, 식물키우기, 두더지 잡기, 같은 그림찾기 등 다양한 컨덴츠가 저장되어 있는 기기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프로그램에 푹 빠진 어르신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미소가 얼굴 가득 담겨있다. <br/><br/><br/>“여기만 오면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 춤도 추고 볼링도 하고 노래도 부르다보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몰라. 일주일에 4번 오니까 거의 매일 오는 거나 마찬가지지.” <br/><br/><br/>당뇨와 암 수술을 한 이후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정하강(77세)할머니. 태블릿 PC를 이용해 블록맞추기를 하는 정 할머니의 손가락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 쪽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보며 X-BOX 기기를 이용해 음악에 맞춰 댄스와 볼링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었다. 또 노래방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며 얼굴 가득 웃음이 떠나지 않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br/><br/><br/>“이곳이 문을 열기 시작하자마자 이용했지.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면 오후에는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해. 1년 정도 여기를 이용하면서 느낀 건 정서적으로 참 좋다는 거야. 주로 손을 움직이는 활동이니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지. 이런 스마트 기기는 그동안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 우리 같은 노인들은 엄두도 나지 않았어. 근데 이젠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첨단기기를 가지고 여가시간을 즐기니 참 좋은 세상이지. ” <br/><br/><br/>황재택(78세)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했다. <br/> <br/><br/><br/> <br/><br/> <br/><br/><br/> <br/><br/><br/>실버계층의 정신건강, 인지력 높여 <br/><br/><br/>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미 습관화된 것은 힘든 일이라도 잘 해내지만 새로운 변화에는 적응하기 어렵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과 새로운 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노년기에 접하는 스마트 기기는 자칫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힐링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br/><br/><br/>힐링센터는 실버계층의 정신건강, 인지력 향상과 신체적 능력을 증진시켜 노년 장애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노인 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가 지원 중심의 노년장애 예방프로그램을 확장해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감성이 합성된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기반 예방,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인지력 향상 공간과 신체 능력 향상 공간, 심리적 이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지력 향상 공간에는 참가자들이 본인의 능력에 맞게 제시되는 웰니스 콘덴츠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또 신체 능력 향상 공간에는 신체를 움직임으로서 저하된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심리적 이완 공간은 안구운동을 통해 심리적 이완을 할 수 있는 아이스캔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노래방 기기가 비치되어 있다. <br/><br/><br/>변지희 과장은“<span class='quot0'>2014년 7월에 개소한 힐링센터는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까지 운영되며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힐링센터의 다양한 컨덴츠는 기억 및 인지능력, 집중력, 감각 지각 능력 개선 등에 도움을 주고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7.txt

제목: 갑작스런 혈뇨, 복통-가까운 비뇨기과에서 치료 가능  
날짜: 2015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10252810  
ID: 01100301.201601072102528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타워비뇨기과 광진점 김명준 원장 <br/> <br/><br/><br/> <br/><br/>  <br/> <br/><br/><br/> <br/><br/>소변에서 갑자기 피가 나온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 원인을 확인한다면 의외로 간단한 시술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혈뇨는 소변에서 비정상적으로 적혈구가 배설되는 증상으로, 전 인구의 10%에서 발견이 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다. 특히, 건강검진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혈뇨가 발견이 되어 걱정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br/> <br/><br/><br/> <br/><br/>  <br/> <br/><br/><br/> <br/><br/>혈뇨는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부터 요도구까지 요로계의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대부분의 혈뇨는 정확한 검사와 진단과정을 거치면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 역시 가능하다. 특히 혈뇨는 방광암이나 신장계통의 종양질환, 만성신부전이나 사구체신염과 같은 만성 신장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다. <br/> <br/><br/><br/> <br/><br/>  <br/> <br/><br/><br/> <br/><br/>신장에서 나오는 혈뇨는 사구체신염, 신장 종양, 신우신염, 악성고혈압, 신장 결핵, 신장 결석 등이 원인일 수 있고, 신장 외에서 나오는 혈뇨는 방광암, 전립선암, 방광염, 요도염,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등이 원인이다. 그 밖의 혈뇨는 약물, 과도한 운동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br/> <br/><br/><br/> <br/><br/>증상별로 원인을 분류해 보면, 옆구리통증이 있으면, 요로결석, 감기후 재발성 혈뇨가 있으면 면역글로불린 A형 신증, 나이 많은 남자에서 배뇨증상이 있으면 전립선 질환, 젊고 건강한 사람에서 몸이 부으면서 혈압이 오르면 급성사구체신염, 소변횟수가 잦으면서 통증이 있으면 방광염, 고열과 오한이 있으면 신우신염, 혈뇨의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성 신염이나 다낭성 신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다. <br/> <br/><br/><br/> <br/><br/>  <br/> <br/><br/><br/> <br/><br/>이중 가장 흔한 원인은 요로 결석과 요로계 염증 질환이다. 혈뇨를 동반한 옆구리 또는 하복부 통증, 빈뇨 등은 요로 결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다. <br/> <br/><br/><br/> <br/><br/>이는 신초음파 및 요로 조영술로 바로 진단 가능하며 동시에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즉각적인 치료도 가능하다. 시술 직후에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다. 본원에서는 24시간 요로결석 응급 치료센터를 운영중이다. <br/> <br/><br/><br/> <br/><br/>  <br/> <br/><br/><br/> <br/><br/>요로계 염증으로 인한 혈뇨는 보통 약물 치료로 혈뇨를 없앨 수 있다. 그 외 방광암 신장암과 같은 종양성 질환은 신초음파 및 방광내시경을 통해 진단 가능하다. <br/> <br/><br/><br/> <br/><br/>최근에는 수면 방광내시경으로 편안히 진행 가능하여 내시경 검사에 두려움이 있는 분에게 널리 활용하고 있다. <br/> <br/><br/><br/> <br/><br/>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혈뇨는 약물 치료가 주가 되면 심한 배뇨곤란이 동반된 경우 내시경하에 전립선 레이져 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마취하에 진행하므로 편안히 누워 있는 동안 수술은 진행 된다. <br/> <br/><br/><br/> <br/><br/>  <br/> <br/><br/><br/> <br/><br/>대부분의 혈뇨는 정확한 진단만 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혈뇨가 있으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비뇨기과를 찾아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br/> <br/><br/><br/> <br/><br/>특히, 40대 이상에서 담배나 화학약품에 노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계암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br/> <br/><br/><br/> <br/><br/>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8.txt

제목: 충북혁신센터, 바이오 벤처에 첫 투자  
날짜: 2015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05841534  
ID: 01100301.2016010720584153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LG는 28일 1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 첫 투자 대상기업으로 지피씨알과 엠모니터를 선정하고 각각 10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br/> <br/>두 회사 모두 2억~3억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창업한 회사다. 이번 10억원 투자 지원이 앞으로 회사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지피씨알은 2013년 11월 체내 세포를 미세한 크기로 연구하는 분자세포 분야 전문 연구원 3명이 서울대 생명공학연구실에 설립한 벤처기업이다. 'G-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전문으로 연구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br/> <br/>지피씨알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부작용 없는 맞춤형 항암제 기술을 확보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임상 1상 승인을 받아 유방암 폐암 간암 뇌종양 등 4개 암과 관련된 30개 맞춤형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피씨알은 직접 신약개발에 나서기보다 대형 제약사들에게 항암제 개발 기술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2~3년 정도 짧은 기간에 신약을 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br/> <br/>엠모니터는 지난해 7월 설립된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조 벤처기업이다. 면봉을 사용해 입 속 구강세포에서 간단히 핵산을 채취, 그대로 증폭시켜 검출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장비를 사용하면 전체과정을 30분 내외로 통합해 감염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LG생산기술원의 장비와 기술 노하우 등을 지원받아 충북에 휴대용 진단장비 생산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br/> <br/>윤준원 충북혁신센터장은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투자가 이뤄진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바이오 전용펀드를 통해 바이오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39.txt

제목: [유방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유방암 여부 진단할 때 불필요한 검사 받지 않나요?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05221629  
ID: 01100301.2016010720522162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방에 뭔가 잡히면 이게 혹시 암은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난다. 그 ‘뭔가’의 정체를 알기 위해 병원에 가기 전 점검사항. 유방의 혹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판별하는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수원 영통 조정훈외과(유방, 갑상선 클리닉) 조정훈 원장이 들려준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조직검사 전 정확한 진단부터 선행돼야 <br/> <br/><br/><br/> <br/><br/>유방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유방 전문의의 촉진과 영상검사 즉 유방촬영 및 초음파 검사이다. 이러한 영상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담당 의사는 유방암 가능성을 가늠하고, 양성으로 의심되면 경과 관찰 또는 혹 절제술을, 악성이 의심되는 혹에 대해서는 바로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악성도에 따라 실시하는 조직검사는 의심되는 병변의 일부 샘플을 채취해 병리학적으로 암세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br/><br/><br/>물론 초음파나 유방촬영으로 나타난 모든 혹을 다 떼어내 조직검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방종괴를 유방암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는 BI-RADS(초음파 영상에 나타난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으로 C0~C6까지 표시된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만 과잉진단을 피할 수 있다. 오랜 임상경험이 있는 유방 전문의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BI-RADS 분류법에 따라 유방의 영상소견이 유방암 가능성 5%이상 일 때 비로소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br/> <br/><br/><br/> <br/><br/>유방암 조직검사를 위한 몇 가지 방법 <br/> <br/><br/><br/> <br/><br/>현재 유방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직검사의 종류에는 미세침흡인세포검사, 중심바늘조직검사, 맘모톰조직검사가 있다. 이러한 조직검사는 초음파 유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br/><br/><br/>미세침세포검사는 말 그대로 가느다란 주삿바늘을 이용한다. 채취물도 조직이 아닌 세포 단위이다. 마취나 절개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진단에 부적합한 검체를 채취할 가능성이 있어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다. 유방암 확진검사로는 정밀하지 못한 미세침세포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br/><br/><br/>조정훈 원장은 “미세침세포검사는 10여 년 전 암을 진단하던 시절에 사용하던 방법이다. 진찰, 영상검사와 함께 삼중음성 진단법이라 하여 유방암 진단에 도움을 주었지만, 부적합한 검체 채취와 세포검사의 판독오류가 문제시 돼 최근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br/><br/><br/>요즘은 고해상도 초음파로 혹의 유방암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절이다. 최근 유방외과 의사들은 충분한 양의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중심바늘조직검사를 유방암 확진검사로 사용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br/> <br/><br/><br/> <br/><br/>유방 혹 등급 따라 치료 가이드라인 있어 <br/> <br/><br/><br/> <br/><br/>조정훈 원장은 “<span class='quot0'>미세침세포검사를 유방 확진검사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병원을 선택할 때는 BI-RAD 시스템에 따라 정확하게 진단하는 병원인지, 초음파로 진단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할 때 미세침세포검사로 하는지 중심바늘조직검사로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span>”고 조언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유방영상 검사 후 미세침세포검사를 하고,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하여 맘모톰 수술을 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맘모톰은 비급여로 시술비 부담이 크다. <br/><br/><br/>조 원장은 “<span class='quot0'>미세침세포검사는 유방 종양의 확진 검사가 아니고, 진단을 내리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0'>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유방 전문의사가 실시하는 ‘중심바늘조직검사’를 받는 게 합당하다</span>”고 말했다. <br/><br/><br/>이러한 ‘중심바늘조직검사‘로도 확진이 안 되는 경우나 양성으로 확진된 유방 종양에 대하여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는 ’맘모톰 절제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br/><br/><br/> <br/><br/><br/>도움말 조정훈 유바외과(유방, 갑상선 클리닉) 조정훈 원장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0.txt

제목: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초등학생을 위한 코딩 교육!  
날짜: 2015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04820926  
ID: 01100301.20160107204820926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대한민국에 코딩열풍이 불고 있다. 아울러 코딩 교육에 대한 여러 길라잡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br/> <br/><br/><br/> <br/><br/>아래에 제시된 코딩 교육에 대한 방법들 중 초등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코딩 교육을 수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br/> <br/><br/><br/> <br/><br/>1. 코딩은 역시 어려운 C를 배워야지, C를 어릴 때부터 배우자! <br/><br/><br/> <br/><br/><br/>2. 컴퓨터 학원에 보내서 어려운 알고리즘을 배우게 하고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시키자! <br/><br/><br/> <br/><br/><br/>3. 학교에서 배우는 스크래치를 선행해서 빨리 배우게 하자, 코딩도 선행 학습! <br/><br/><br/> <br/><br/><br/>4. 요즘은 모바일이 대세,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코딩을 배우게 하자! <br/><br/><br/> <br/><br/><br/>5. 코딩도 한 걸음부터, 어릴 때 내가 배운 것처럼 Basic부터 배우게 하자! <br/> <br/><br/><br/> <br/><br/>그러나 위 제시된 것들 중 어떤 방법도 21세기 선진국에서 가르치는 코딩 교육의 교육적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진국들에서 시작된 코딩 교육의 목표는 코딩의 기술교육이나 컴퓨터 언어 교육에 있지 않으며 그것은 바로 'Computational Thinking(컴퓨팅적 사고력)'이기 때문이다. <br/> <br/><br/><br/> <br/><br/>스마트폰, 스마트 TV, 구글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형 로봇, 보편화된 드론 기술 등 최근 20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공학적 발전은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성과 유기성은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냈다. <br/> <br/><br/><br/> <br/><br/>중학생이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장애인용 '점자 로봇'을 만들기도 하였고 고등학생이 3 센트라는 믿지 못할 가격의 '암 진단 키트'를 발명하기도 하는 등 코딩 교육의 과정에 '협업'과 '공유'라는 가치교육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런 코딩 교육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코딩'이 공학이나 과학 일반은 말할 것도 없고, 디자인, 음악, 인문학적 스토리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교육이 아닌 창의적인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br/> <br/><br/><br/> <br/><br/>코딩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려운 컴퓨팅적 사고를 '즐거운 놀이'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과정에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재 선진국들에서 벌어지는 코딩 열풍의 진정한 모습이다. <br/> <br/><br/><br/> <br/><br/> <br/><br/><br/>런스팀 에듀  전상현대표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1.txt

제목: 갑상선염 : 갑상선기능이상 치료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이다.  
날짜: 2015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04817126  
ID: 01100301.20160107204817126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조정훈유바외과 조정훈 원장 <br/><br/><br/> <br/><br/><br/> 갑상선 하면 대부분 ‘여성암 1위’ 라는 ‘갑상선암’ 키워드가 생각난다. 하지만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암 질환 이외에 ‘기능이상’ 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갑상선 기능이상은 때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br/><br/><br/>많은 환자들이‘갑상선 기능검사에서 이상이 있다’ 하여 병원에 내원한다. ‘갑상선기능항진증’, 또는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고, 항갑상선제 내지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 <br/><br/><br/>갑상선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갑상선염증’이다. 갑상선염은 급성 세균성 염증부터 만성, 자가면역성 갑상선염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갑상선염이 생기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에 균형이 깨지게 된다. 발병 초기에는 염증에 의해서 갑상선세포가 파괴되면서 세포 내 함유 되어있던 호르몬이 혈액에 과다 배출되면서 기능이 상승한다. 그러나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포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결국 호르몬이 부족하게 된다. 다시 말해, ‘만성 갑상선염’ 은 시기에 따라  ‘갑상선 기능항진증(중독증)’ 과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모두 생길 수 있다.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정확한 진단 없이 무턱대고 ‘항갑상선제’ 를 복용하면, 오히려 이어지는 ‘기능저하증’ 이 악화된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br/> <br/><br/><br/> <br/><br/>결론적으로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항갑상선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병원에 내원하여 갑상선의 크기와 모양 등을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를 받고, 해당되는 자가면역항체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6~8주 간격으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여, 시기 적절한 약물 (항갑상선제, 호르몬제)을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갑상선염은 고혈압처럼 본인이 잘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한 질병이다. 갑상선염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은 아니다. 허나 갑상선이 담당하고 있는 호르몬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로 인하여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 안 되는 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2.txt

제목: KT-서울대, 암 유전체연구센터 개소  
날짜: 2015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03437320  
ID: 01100301.201601072034373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KT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황창규 KT 회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정보실용화센터'(IBIS) 개소식을 가졌다. <br/> <br/>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 위치한 IBIS는 일주일에 약 100명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생명정보 데이터분석 전문 연구센터다. KT의 첨단 ICT 역량과 서울대의 생명정보 분석기술 및 전문 연구인력을 통해 유전체 분석 핵심 솔루션 개발과 유전체 관련 사업발굴을 목표로 설립됐다. <br/> <br/>KT와 서울대는 지난해 5월부터 바이오인포매틱스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 치료의 핵심 요소인 암 발병 원인 유전자 검사 기술과 유전체 정보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다. 이번 IBIS 개소를 통해 향후 암 유전체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암 동반진단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첨단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br/> <br/>황창규 회장은 "IBIS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국가 창조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3.txt

제목: 흉터 예방 관리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02936032  
ID: 01100301.2016010720293603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더마주피부과 김주영 원장 <br/><br/><br/>  <br/> <br/><br/><br/> <br/><br/>흉터는 상처의 초기 치료가 적절히 잘 이루어진 경우 상피화가 되고 보통 삼출물이 나오지 않기까지 3주 이하의 기간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며, 이후엔 일반적으로 상처가 다 나았다고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 <br/> <br/><br/><br/> <br/><br/>이처럼 상처가 아문 후, 수술 봉합선의 실밥 제거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을 프리스카 혹은 전흉 (흉터의 전 단계)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 시기는 상처의 성숙시기로서 이때 적절한 관리나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 상처의 형태나 모양이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며 섬유질의 합성과 분해 간의 균형이 깨져서 체질에 따라 비후성 흉터 혹은 켈로이드 흉터로의 변이까지 초래할 수 있다. <br/> <br/><br/><br/> <br/><br/>이 단계에 흉터의 최소화 혹은 예방을 위해 전문적 레이저 시술과 관리를 적극 활용해보자! 일단 이 시기 상처의 가장 적극적인 치료로는 ‘브이빔퍼펙타’로 알려진 혈관레이저(Pulsed Dye Laser)를 조사하는 것이다. 595nm파장대의 빔이 혈관의 붉은 혈색소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과도한 혈관반응과 붉은 기를 감소시켜 안면홍조, 여드름의 붉은 자국, 선천성 혈관모반의 치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br/> <br/><br/><br/> <br/><br/>특히 퍼펙타의 경우 기존의 브이빔 레이저에 비해 조사 시간을 길게 조절할 수 있어 혈관에 대한 작용 뿐 아니라 진피 내 섬유질의 재배열과 리모델링을 최대한 유도하여 흉터를 예방하는 치료로 수술 후 모든 수술자국이나 튼살의 붉은 초기병변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탁월한 시술후 만족도를 나타낸다. <br/> <br/><br/><br/> <br/><br/>일부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암 수술, 아킬레스건 봉합수술, 제왕절개 수술 자국 등에 대해 흉터 예방치료 목적으로 실밥제거 2-4주 이내에 바로 PDL혈관레이저시술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br/> <br/><br/><br/> <br/><br/>프리스카 레이저시술은 실밥제거 2-4주 이내에 3-4주 간격으로 3회-5회 정도 시술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최근 많이 알려져는 흉터치료제 홈 케어와 함께 치료 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상처치유는 동화작용(anabolic)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알부민, 비타민 A, C, 지방산, 아연, 구리 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br/> <br/><br/><br/> <br/><br/>상처 초기의 적절한 드레싱, 프리스카, 흉터 전 단계 자국에 대한 전문화된 적극적인 치료로 비후성 반흔이나 흉터로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4.txt

제목: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성장하는 중학생들]용인 신촌중학교 동아리 발표회 현장을 가다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02947125  
ID: 01100301.20160107202947125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몇 해 전부터 중학교에도 교내 자율동아리 붐이 일기 시작했다. <br/><br/><br/>시작은 특목·자사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 학생들의 스펙용이었으리라. <br/><br/><br/>실제로 중학교마다 학기 초에 자율동아리 신청이 봇물 터지다가 시간이 갈수록 <br/><br/><br/>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br/><br/><br/>그런데 대학생 동아리보다 활동을 잘하는 중학생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br/><br/><br/>용인 신촌중학교를 찾았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중학생들이 영어로 모의재판을? <br/><br/><br/>지난 8월 28일 오후 4시, 용인 신촌중학교 도서관에서 영어동아리 LTE-us(Let’s Talk English with us)의 영어 모의법정(Mock trial) 발표회가 있었다. <br/><br/><br/>“저희 동아리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영어로 진행하는 모의법정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분석하여 역할을 나누고 부원들이 직접 원고를 작성해 매일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재판이라 조금 어렵거나 지루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회장 권법강군의 진행으로 발표회가 시작됐다. 각 측 변호사들의 입론이 펼쳐졌고,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40분간 진행된 재판은 변호사들의 최종변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br/><br/><br/>모의재판은 영어권 국가에서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많이 도전하는 클럽활동이다. 국내에서는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는 물론이고 영어학원에서조차도 경험하기 어렵다. 최근 경기외고와 외대부고 학생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회를 주최하기 시작하여 경험자들이 조금씩 배출되고 있다. 신촌중학교 영어동아리 LTE-us의 회장단(권법강, 우동현, 박하은)은 경기외고와 외대부고 모의법정대회에 출전해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들로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후배들을 가르치고 발표회를 준비했다. <br/> <br/><br/><br/> <br/><br/> <br/><br/><br/> <br/><br/><br/>영어로 재판과정 공부하고 <br/><br/><br/>청중 앞에서 설득해야 <br/><br/><br/>“영어모의법정은 모국어로도 어려운 법, 재판에 대한 용어와 내용을 영어로 공부해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어야하고 청중과 심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해보면 재미있고 영어학원 다니는 것보다 실력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처음에는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후배들 실력이 몰라보게 느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팀워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회장 우동현군의 말이다. <br/><br/><br/>“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자신 없어서 발표회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케이스를 읽고 원고를 쓰면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연습하면서 재미를 느껴 빠져들게 됐습니다. 실수할까봐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서도 중얼중얼 대사를 외웠습니다. 충분히 연습한 덕분에 실수하지 않고 발표를 마쳐서 정말 뿌듯했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학년 권미성 부원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br/> <br/><br/><br/> <br/><br/>용인 신촌중학교 대표 자율동아리 <br/> <br/><br/><br/> <br/><br/>영어토론동아리 LTE-us <br/><br/><br/> <br/><br/><br/>영어 모의법정, 영어 디베이트, 영어 기사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이다. 1,2,3학년 재학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 모의법정 교내 발표회를 개최했다. 매주 토요일 용인영어도서관에서 유아들을 위한 영어교실 봉사를 하고, 교내에서 중고 학용품을 모아 저개발국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호펜’ 활동도 펼쳤다. <br/><br/><br/> <br/><br/><br/>생명공학동아리 With 홈즈 <br/><br/><br/> <br/><br/><br/>유전자 조작과 암 치료방법의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하는 생명과학 동아리이다. 유전자 조작에 관련된 영화를 선정해 관람하고 유전자 조작 관련 기사 및 치료 사례를 조사해 토론활동도 펼치고 있다. 여름방학에는 국립 암센터에 견학을 갔고, 현재 부원들이 함께 소논문을 작성 중이다. <br/><br/><br/> <br/><br/><br/>음악연주 봉사동아리 Dream 앙상블 <br/><br/><br/> <br/><br/><br/>클래식 음악연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동아리이다. 주 2회 아침에 모여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운드 오브 뮤직’, ‘호두까기 인형’ 등의 곡을 연습하며, 지역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 음악회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군·면·읍 단위의 작은 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고 있다.  <br/><br/><br/> <br/><br/><br/>과학영어토론동아리 <br/><br/><br/> <br/><br/><br/>과학 서적이나 영어로 된 과학 기사를 읽고 영어로 토론하는 동아리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면서 영어로 말하기, 글쓰기 능력까지 향상하고자 한다.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와 신촌중은 집단토론언어교수법의 교육현장 적용에 대한 산학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5.txt

제목: 순천향대천안병원, 건강검진결과 인터넷 조회서비스 시작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02859248  
ID: 01100301.20160107202859248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9월부터 ‘검진결과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시작했다. <br/><br/><br/>‘검진결과 인터넷 조회서비스’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검진결과를 확인하는 간편 서비스다. <br/><br/><br/>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병원의 검진결과 확인요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병원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된다. PC의 경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건강증진센터 페이지로 들어가 ‘검진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도 모바일 버전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첫 화면의 검진결과 조회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 <br/><br/><br/>별도의 가입절차나 앱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으며, 결과 내용 인쇄는 물론, 누적된 모든 검진결과 비교가 가능해 건강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단,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br/><br/><br/>서비스는 종합검진을 비롯해 특수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등 병원이 실시한 모든 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6.txt

제목: 대전창조혁신센터, 드림벤처 스타 2기 선정  
날짜: 2015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60107202547127  
ID: 01100301.20160107202547127  
카테고리: 경제  
본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센터)는 1일 스탠다드에너지 등 10개 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벤처 스타 2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10개월간 인큐베이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r/> <br/>드림벤처 스타 2기에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시킨 업체들이 다수 선발됐다. <br/> <br/>적외선 센서와 에너지저장장치, 레이저 활용 암진단, 플라즈마 활용 멸균 기술 등 대학과 연구소에서 확보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한 벤처기업이 60%나 됐다. <br/> <br/>카이스트 현직 교수들과 국내외 유명대학 석박사급 연구원이 창업 대열에 합류한 것도 특징이다. 벤처기업 대표의 연령도 30대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젊어졌다. <br/> <br/>사업 분야는 사물 인터넷(3건)과 헬스 케어(2건), 반도체 에너지 플랫폼 솔루션 핀테크(각 1건) 등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 사물 인터넷과 제조 솔루션 분야가 주종을 이뤘던 1기에 비해 융합형 사업 아이템이 많아졌다. <br/> <br/>드림벤처 스타 2기에 선정된 스탠다드에너지는 대용량 에너지저장 차세대 2차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2차전지에 비해 수명이 길고 설치가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하다. <br/> <br/>여기에 전북센터 탄소섬유 기술이 더해지면 무게는 더 가벼워지고 전도율이 높아져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어진다. <br/> <br/>김부기(30) 스탠다드에너지 대표는 "대전센터와 전북센터, SK그룹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배터리와 소재 분야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br/> <br/>대전센터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벤처가 많이 선발된 점에 주목하고 사업화 모델을 다듬어 '조기 대박'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은 벤처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인큐베이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br/> <br/>대전센터는 지난해 10월 벤처기업 10개를 드림벤처 스타 1기로 선발한 뒤 사업화를 지원했다. 이들은 매출 6.1배 증가(3억20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 투자(33억8000만원), 고용 73% 증가 등의 성과를 올렸다. <br/> <br/>SK는 2기 벤처기업의 기술이 그룹 주력사업과 연계된 것이 많아 기술과 사업부서 전문가를 1대1로 매칭시켜 사업화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br/> <br/>임원급 전문가도 멘토링에 참여시켜 '알짜 노하우'가 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br/> <br/>이와 함께 벤처기업 운영과 성장과정을 2주나 1개월 단위로 점검하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br/> <br/>시장 동향과 사업제안 요청 등 개별 벤처기업 사정에 맞춘 국내외 정보를 파악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br/> <br/>중국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선전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해외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br/> <br/>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달 18일부터 대전과 세종 충북 울산 대구 등 5개 창조경제센터를 잇달아 방문할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다. <br/> <br/>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산하 7개 위원장, SK하이닉스와 SK E&S CEO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룹의 최고경영진들이 창조경제를 챙기고 있다.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7.txt

제목: 요로결석과 여름철 물과 관련된 건강상식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071710017969451  
ID: 01100301.20150717100179694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타워비뇨기과 광진점 김명준 원장 <br/> <br/><br/><br/> <br/><br/>  <br/> <br/><br/><br/> <br/><br/>여름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 1.5ℓ의 수분이 땀으로 나간다. 따라서 하루 맥주잔 10잔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을 먹는 데 게으르다. 사실 우리 몸에서 물 없이 이루어지는 신진대사는 거의 없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다.여름철 물과 관련된 건강상식을 알아본다. <br/> <br/><br/><br/> <br/><br/>  <br/> <br/><br/><br/> <br/><br/>하루 필요한 물은?인체의 50~85%는 물로 이뤄져 있다. 체중에서 체지방 비율이 높으면 수분 비율도 올라간다. 땀이 나지 않아도 체중의 4% 정도의 수분이 매일 배출된다. 이 중 절반은 내쉬는 호흡과 알게 모르게 피부를 통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배설된다. 따라서 하루 1.5~2ℓ정도의 물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물 부족을 막을 수 있다. 과일•야채 등의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수분은 통상 약 1ℓ. 이것으론 250 ㎖ 정도만이 체내 대사과정을 통해 물로 만들어진다.그러니 나머지 1.5ℓ 정도는 매일 마셔야 하는 수분의 양이다. 대개 섭취 ㎉당 1㎖ 정도의 물을 먹도록 권장된다. 남자 성인이 하루 2900㎉, 여자가 2200㎉의 음식을 먹으므로, 250㎖ 맥주잔으로 남자는 약 12컵, 여자는 9컵의 물을 먹어야 한다.물 부족으로 오는 질병들인체에 물이 부족하면 새로운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기도 한다. 요로결석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에서 칼슘 등이 결석의 시발점이 되어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면 소변의 농도가 짙어져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원래 있던 결석도 커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물을 많이 마신다면 소변을 희석 시키고, 있던 요로결석의 배출도 원활해진다. 치료와 예방이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먹으면 콩팥, 요관, 방광 등 요로에 생기는 암 발생도 줄여준다. 이는 발암물질이 접촉하는 시간과 농도를 줄여 주기 때문이다. 특히 방광암의 예방 효과는 물을 많이 마실수록 커진다. <br/> <br/><br/><br/> <br/>Copyright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8.txt

제목: [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소개]일상생활에 도움 주는 똑똑한 애플리케이션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062610017726346  
ID: 01100301.2015062610017726346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똑똑한 전화기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br/><br/><br/>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각종 정보와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는 똑똑한 사용자가 되는 첫 단계이다.  <br/><br/><br/>  <br/> <br/><br/><br/> <br/><br/> 전문가도 인정한 ‘스마트구조대’ <br/><br/><br/> <br/><br/><br/>  <br/><br/><br/>사진1>스마트구조대 메인                      사진2>스마트구조대 대처 요령 <br/><br/><br/> <br/><br/><br/>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와 구조가 늦어지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스마트구조대’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br/><br/><br/>앱을 실행하면 화재신고(119), 범죄신고(112), 해양신고(122), 국가안보(111), 산악신고(1688-3119)로 상황별 신고 전화 화면이 나온다. 상황별로 각각 SNS나 통화로 담당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다. <br/><br/><br/>구급 버튼을 누르면 위험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급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어 구조를 나오는 분들도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다. <br/><br/><br/>사고 유형을 선택하면 신고자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된다. 대도시라면 위치 설명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고 위치 설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스마트구조대에 표시된 지도를 누르면 위치가 바로 전송되어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   <br/><br/><br/>또한 하단 메뉴에 있는 응급 처치 방법에는 심폐소생술, 심장 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시 응급 처치법, 화상이나 뱀 물림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나와 있다. 위기 상황 시 대처요령에는 산악사고, 산불, 익사, 매몰?붕괴사고, 폭발 및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처요령을 볼 수 있다. 실종이나 유괴,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 유형 등과 같은 생활안전정보 역시 자세하게 나와 있다. <br/> <br/><br/><br/> <br/><br/>내 손 안의 개인트레이너 ‘건강갤러리’ <br/><br/><br/> <br/><br/><br/>  <br/><br/><br/>사진3>건강갤러리 메인                            사진4>건강갤러리 건강 운동 <br/><br/><br/> <br/><br/><br/>건강갤러리 앱을 실행하면 건강문고, 건강검진 안내문, 웹툰, 동영상, 웹진, 비만 개선 프로그램 등이 보이는 첫 화면이 열린다. <br/><br/><br/>웹툰 메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건강지식을 알려주는 건강 IN 웹툰, 알기 쉽게 만화로 신체 각 부위별 질환과 치료방법을 알려주는 헬스 카툰, 건강검진제도에 대한 알려주는 건강검진 항목이 있다. <br/><br/><br/>동영상 메뉴에는 우울증?비만?고혈압?뇌졸중 등 14개의 만성질환, 대장암?폐암?전립선암?자궁경부암 등 9개의 암 질환, 인터넷 중독?스트레스?자살예방, 식이장애 등 11개의 청소년보건교실, 따라 하기 쉬운 건강 체조와 노인의 기능 저하 예방운동 등 6개의 노인운동, 요가?스트레칭?웨이트 등 3가지의 건강운동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br/><br/><br/>만성질환과 암질환은 발생 원인, 증상,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예방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설명도 해준다. 노인운동과 건강운동은 직접 보고 들으며 따라 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실생활에서 언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br/><br/><br/>웹진 메뉴에는 매달 발행하는 건강IN매거진을 손쉽게 볼 수 있어 최신의 건강뉴스를 접할 수 있다. 그 외 비만개선프로그램 메뉴에는 비만에 대한 설명과 자가진단, 비만진단 다이어리 등이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하루 동안 섭취한 칼로리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br/> <br/><br/><br/> <br/><br/>사용자가 만들어가는 강원도여행정보 ‘토스트’ 앱 <br/><br/><br/> <br/><br/><br/>  <br/><br/><br/>사진5>토스트메인                                        사진6>토스트래포츠 <br/><br/><br/> <br/><br/><br/>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강원도의 여행정보 앱인 '토스트(TOaST, Tour&Story)'는 강원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이 있는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작되었다. <br/><br/><br/>토스트는 관광지, 맛집, 숙박, 강원 길, 농촌체험, 전통시장, 축제공연, 문화유산, 특산품 등 다양한 정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제공하고 있다. <br/><br/><br/>회원 가입을 하면 사용자는 직접 맛집, 숙박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천하거나 등록하고 콘텐츠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 사용자들의 왕성한 활동을 위해 매달 활동왕 이벤트를 통해 선물도 주고 있다. <br/><br/><br/>여행자에게 가장 유용한 항목인 ‘내 주변 정보’ 기능은 현재 위치 주변에 있는 관광지, 맛집, 숙박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것은 물론 여행지 반경 10km 이내 주요장소까지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다. <br/><br/><br/>아이들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문화관광해설사 예약하기’ 기능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현장학습이 가능한 일정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br/><br/><br/>‘증강현실’ 기능을 통해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설명과 위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특산품쇼핑‘ 기능도 있어 강원도 특산품을 모바일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br/> <br/><br/><br/> <br/><br/>  <br/> <br/><br/><br/> <br/>Copyright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49.txt

제목: 생보사 모바일슈랑스 바람 '멈칫'  
날짜: 2015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062310017684168  
ID: 01100301.2015062310017684168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스마트폰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슈랑스' 바람이 멈칫거리고 있다. <br/><br/><br/> <br/><br/><br/>모바일슈랑스는 모바일과 인슈어런스(보험)의 합성어로, 보험설계와 가입, 결제 등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br/><br/><br/> <br/><br/><br/>지난 4월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뒤이어 미래에셋생명이 관련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생보업계의 모바일슈랑스가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KDB생명과 현대라이프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6월 중 모바일슈랑스에 합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때문이다. <br/><br/><br/> <br/><br/><br/>4개 생보사가 모바일슈랑스 시장을 형성해 경쟁이 가열되면 나머지 생보사들로 바람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br/><br/><br/> <br/><br/><br/>하지만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과 현대라이프의 모바일슈랑스 추가합류는 지연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br/><br/><br/> <br/><br/><br/>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KDB생명은 모바일슈랑스 도입이 한달 이상 늦춰지는 분위기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초 6월 말에 모바일슈랑스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관련 시스템 개발이 올 초에 시작돼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r/><br/><br/> <br/><br/><br/>KDB생명은 당초 5월 출시를 계획했다가 지난 4월엔 6월로 한달 늦췄고, 시스템 구축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면서 다시 뒤로 미룬 상태다. <br/><br/><br/> <br/><br/><br/>현대라이프는 모바일슈랑스에서 아예 발을 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라이프는 모바일을 통한 상품조회, 가입설계가 이미 가능했던 상태라 보험료 결제만 보태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상황이었다. 현대라이프는 당초 7월 중에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들을 모두 모바일로도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br/><br/><br/> <br/><br/><br/>그러나 최근 들어 모바일슈랑스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나오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보험가입과 결제가 편리하지만 고객이 언제든지 손쉽게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어서 보험사로서는 약점이 된다"면서 "유지율 관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br/><br/><br/> <br/><br/><br/>생보업계에서는 현대라이프의 경우 모바일슈랑스 진입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라이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마트슈랑스 등 톡톡 튀는 상품을 만들어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켰지만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온라인·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br/><br/><br/> <br/><br/><br/>이에 따라 향후 모바일 보험시장은 교보라이프플래닛과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위주로 경쟁이 벌어질 공산이 커졌다. <br/><br/><br/> <br/><br/><br/>◆라이프플래닛, 미래에셋생명 모바일 판매는 순항 = 한편, 교보라이프플래닛과 미래에셋생명의 모바일 보험판매는 출시 한달여 기간 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br/><br/><br/> <br/><br/><br/>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전체 가입 건수의 21% 가량이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미래에셋도 스마트폰 가입 비중이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br/><br/><br/> <br/><br/><br/>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2년 전에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한 일본 라이프넷의 모바일 가입고객 비중이 전체의 23~25% 정도"라면서 "우리 시장의 모바일슈랑스가 아직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판매 비중 15~20%는 향후 성장세가 기대되는 수치"라고 말했다. <br/><br/><br/> <br/><br/><br/>모바일 보험가입에 주로 관심을 갖는 층은 30~40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r/><br/><br/> <br/><br/><br/>교보라이프플래닛이 지난 5월 한달간 가입건수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 가입자의 연령은 30대가 5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25.8%), 20대(12.9%), 50대(3.2%)의 순이었다. 보험가입에 관심이 높은 30~40대 고객 비율이 무려 83.9%에 달했다. <br/><br/><br/> <br/><br/><br/>특히 보험 가입을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해 보험료 계산을 해본 전체 접속자 중 약 40%는 모바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 <br/><br/><br/>상품별로는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과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각각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br/><br/><br/> <br/><br/><br/>미래에셋생명은 암·정기·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 상품과 업계 최초의 온라인 변액보험까지 총 10종의 상품을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br/> <br/><br/><br/> <br/>Copyright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50.txt

제목: [책으로 읽는 경제 | 숫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숫자 뒤에 숨은 정치경제학  
날짜: 2015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061910017649810  
ID: 01100301.20150619100176498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로렌조 피오라몬티 지음 / 박지훈 옮김 / 더좋은책 / 1만5000원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영국의 황금기'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 시대 총리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br/> <br/>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대학교 교수인 로렌조 피오라몬티 교수도 아마 디즈레일리 총리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한 사람일 듯하다. 국가의 경제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 국내총생산(GDP)을 살짝 비꼰 '국내총문제(Gross Domestic Problem)'를 펴낸 바 있는 피오라몬티 교수는 새로운 신간을 들고 나왔다. 이 책 역시 숫자가 정말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어떤 편견도 담기지 않은 진실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 통계 뒤에 숨어 있는 권력과 정치,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통찰한다. <br/> <br/>예를 들어 기후변화 논쟁은 40년간이나 통계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다.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양 진영은 숫자, 통계, 모델, 지표를 사용해 정반대의 아젠다를 제시했고 여기에 수많은 통계전문가들이 개입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한편의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현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또 한편의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이론에 반대하며 다른 숫자를 제시하곤 했다. 수많은 이해관계도 개입되어 있다. 기후변화 회의론 뒤에는 화석연료 분야와 군수산업 분야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주류적 견해를 반박하는 시민단체나 연구소를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기존 통념(흡연과 암의 관계 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하는 데 애썼다. <br/> <br/>기후변화론자들이 구린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2009년 11월 19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지구온난화 보고서를 만들어 온 필 존스 교수의 개인 이메일이 해킹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의 이메일을 통해 필 존스가 그동안 수많은 정보를 은폐해왔고, 기후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데다, 기후과학자들이 이용한 통계수치들이 조작돼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br/><br/> <br/> <br/><br/><br/> <br/>Copyright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51.txt

제목: 홍삼이 항암제 부작용 급성신부전에 효과 있다  
날짜: 2015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051210017256000  
ID: 01100301.201505121001725600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홍삼이 항암제 부작용인 급성신부전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주영 충남대 교수팀은 42마리 동물을 6마리씩 7개 그룹의 실험군으로 나눠 항암제 시스플라틴으로 생기는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신장기능 보호효과를 관찰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실험 결과, 홍삼 투여군에서 시스플라틴만 투여군 대비 체중 감소 정도가 줄어 들었다. 또 신장 내 조직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세포산화물 형성, 세뇨관 괴사 정도도 홍삼 투여군에서 감소됐다. 이외 △홍삼 투여군에서 혈장 내 신장기능 지표 및 소변량의 급격한 증가가 개선 △신장 내 산화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필수요소인 생체활성 항산화 효소와 과산화물제거효소도 증가했다. <br/> <br/>현재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시스플라틴은 난소, 방광, 머리, 목 등 고형암에 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시스플라틴 투여로 구토, 오심, 무기력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장독성을 가지고 있어 급성신부전이 유발될 수 있다. <br/> <br/>급성신부전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는 초기 치료실패 시, 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성신부전으로 이행될 위험이 높다. 급성신부전에는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성과이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로 암 치료에 쓰이는 시스플라틴으로 인한 신장기능 감퇴가 홍삼 투여로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급성신부전 외 다른 종류의 신장병치료에도 홍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의학지인 독일의 '플란타 메디카' 6월호에 게재됐다.<br/><br/> <br/> <br/><br/><br/> <br/>Copyright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52.txt

제목: 미래에셋생명도 '모바일슈랑스' 가세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050110017150539  
ID: 01100301.2015050110017150539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미래에셋생명이 '모바일슈랑스'에 가세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이어 생보업계에서 두 번째다. <br/> <br/>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은 30일 모바일 환경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PC 환경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던 온라인보험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br/> <br/>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를 통해 미래에셋생명 온라인보험 홈페이지(http://online.miraeasset.com/mobile)에 접속하면 터치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br/> <br/>단순한 화면 구성으로 보험을 잘 모르는 고객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고,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거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br/> <br/>모바일 상에서 가입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면 PC 홈페이지(http://online.miraeasset.com)의 '보험가입 진행현황'을 조회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가입 후에는 '사이버창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관리할 수 있다. <br/> <br/>차승렬 미래에셋생명 모바일비즈니스팀장은 "이번 모바일 서비스 오픈으로 한 번의 보험료 납부로 2년의 군 생활을 보장받는 '건강제대보험'은 입대 1시간 전에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상품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br/> <br/>미래에셋생명 온라인보험은 암, 정기, 어린이 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과 업계 최초의 온라인 변액보험까지 총 10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보험 판매회사 중 가장 많은 상품 숫자다.<br/><br/><br/><br/> <br/>Copyright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53.txt

제목: 요실금 치료 이것만은 알자!  
날짜: 2015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043010017150493  
ID: 01100301.201504301001715049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타워비뇨기과과 광진점 김명준 원장 <br/><br/><br/>  <br/> <br/><br/><br/> <br/><br/>요실금클리닉을 운영하다보면 안타깝고도 흐뭇한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얼마 전 요실금수술을 받으시고 이제는 손녀랑 마음껏 줄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해하시던 60대 할머니부터 요실금 때문에 계모임, 여행 한번 맘껏 못했다면서 하소연 하던 40대 아주머님까지 남몰래 고민아닌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간단한 치료만 하면 얼굴을 활짝 피고 맘껏 웃으면 훨씬 젊어질텐데...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br/> <br/><br/><br/> <br/><br/>1. “요실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br/> <br/><br/><br/> <br/><br/>요실금은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요실금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질환 못지않게 당사자를 괴롭히는 질환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시원하게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도 요실금을 “사회적인 암”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적인 요실금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br/> <br/><br/><br/> <br/><br/>요실금은 아주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요즘의 요실금 수술은 과거와 달리 간단한 국소마취만으로 30분이면 통증없이 수술이 끝나고, 2-3시간 지나면 회복이 되며, 입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실금 수술을 결심한 분들 대부분이 전에 수술한 분들의 권유로 수술할만큼 수술한 분들의 90%이상이 수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한 분들은 딴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즘 웰빙 시대에 평생을 요실금으로 계속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결심과 수술로 전혀 다른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은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r/> <br/><br/><br/> <br/><br/>2. “수술을 안하고도 요실금을 치료할수 있나요? <br/> <br/><br/><br/> <br/><br/>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되는 요실금이지만, 많은 분들이 수술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의 약한 요실금의 경우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체외자기장치료 등을 꾸준히 하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출산 후 예방적 목적으로 위의 치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다만 최소한 6개월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으며,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에는 치료가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약한 요실금 치료나 요실금 예방이 목적인 경우에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체외자기장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은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br/> <br/><br/><br/> <br/>Copyright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54.txt

제목: [보건소 소식]서북구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날짜: 2015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5030110016412793  
ID: 01100301.2015030110016412793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제9기 건강대학 수강생 모집 <br/> <br/><br/><br/> <br/><br/>기간 : 2월 27일(금)까지 <br/><br/><br/>운영 : 3월 11일(수)~5월 27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br/><br/><br/>인원 : 120명(선착순)  <br/><br/><br/>내용 : 평생건강관리, 심장혈관, 신경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 암 등 12개 분야  <br/><br/><br/>강사 : 단국대병원 교수진 강의                  <br/><br/><br/>  <br/><br/><br/>활력 UP 건강100세 근력강화 운동교실 <br/> <br/><br/><br/> <br/><br/>모집 : 3월 2일(월)~13일(금) 선착순 60명 <br/><br/><br/>운영 : 가. 3월 16일(월)~10월 30일(금) 주 2회 월·목 오전 10시~11시  <br/><br/><br/>       나. 3월 31일(화)~6월 30일(화) 주2회 화·목 오전 10시~11시 <br/><br/><br/>장소 : 가. 정신건강증진센터 2층 (구) 성정동보건소 <br/><br/><br/>       나. 불당동 서북구 보건소 4층 프로그램실 <br/><br/><br/>대상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br/><br/><br/>내용: 가. 태극권(근력강화, 유연성운동) / 나. 건강요가, 건강체조 <br/><br/><br/>  <br/><br/><br/>지방 내리 go 근력 올리 go <br/> <br/><br/><br/> <br/><br/>모집 : 3월 2일(월)~13일(금) 선착순 24명 <br/><br/><br/>운영 : 3월 23일(목)~6월 12일(금) 주 5회 월~금 오전 9시 30분~11시, 오전 10시 30분~낮 12시 <br/><br/><br/>장소 : 불당동 서북구 보건소 2층 운동지도실 <br/><br/><br/>대상 : 체지방율 40~50%인 30~50대 천안시 서북구 거주여성 24명 <br/><br/><br/>내용 : 순환장비 이용한 근력운동 및 에어로빅, 체성분검사, 혈압·혈당·혈액 검사, 영양관리, 월 1회 산행 등 숲 프로그램 지원 <br/><br/><br/>  <br/><br/><br/>비만관리프로그램 <br/> <br/><br/><br/> <br/><br/>모집 : 3월 2일(월)~13일(금) 선착순 60명 <br/><br/><br/>운영: 3월 23일(목)~6월 12일(금) 주 3회 월 수 금   <br/><br/><br/>장소 : 가. 두정동 슈퍼스타짐(오전 11시 20분~낮 12시 20분) <br/><br/><br/>       나. 쌍용동 삼성N.A.C에어로빅(오전 11시 30분~낮 12시 30분) <br/><br/><br/>대상자 : 체지방율 35~50%인 30~50대 천안시 서북구 거주여성 각 30명 <br/><br/><br/>내용 : 가. 다이어트복싱, 근력운동 / 나. 에어로빅, 근력운동 <br/><br/><br/>공통 : 체성분검사, 혈압, 혈당, 혈액 검사, 영양관리, 월 1회 산행 등 숲 프로그램 지원 <br/><br/><br/> <br/><br/><br/>문의 및 접수 : 서북구보건소 건강증진팀 <br/> <br/><br/><br/> <br/>Copyright

언론사: 내일신문-1-55.txt

제목: [중소기업 탐방│(주)라이트팜텍] 차세대 '광역동 암치료기' 개발  
날짜: 2014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4060510014510774  
ID: 01100301.201406051001451077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라이트팜텍(대표 김정숙)은 차세대 암치료제와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br/><br/><br/> <br/><br/><br/>라이트팜텍은 매출은 작지만 바이오 업계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벤처다. 최근에 항암제 복제약 상용화에 성공, 종합병원에 납품하면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br/><br/><br/> <br/><br/><br/> <br/><br/><br/><9년간 약국을 운영하다 신약개발에 흥미를 느껴 항암제 시장에 뛰어든 김정숙 라이트팜텍 대표. 김 대표는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로부터 100억원 가량의 지분투자를 받아냈다. 사진 라이트팜텍 제공> <br/> <br/><br/><br/><br/><br/>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들이 앞다퉈 투자할 정도로 회사의 미래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br/><br/><br/> <br/><br/><br/>라이트팜텍은 주로 첨단 바이오 의약분야인 차세대 광역학 진단기기 및 치료용 광민감제(Photosensitizer)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 <br/><br/><br/> <br/><br/><br/>부작용 없이 종양만을 치료하는 '광역동(光力動)치료'가 차세대 치료법으로 각광 받자 라이트팜텍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광역동치료제를 생산,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일반 암치료 방법인 외과적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은 치료효과는 제한적이면서 정상적인 조직까지 손상시키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광역동 치료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한 치료법이다. <br/><br/><br/> <br/><br/><br/>광역동치료(photodynamic therapy )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인 광과민제를 문제가 되는 피부나 신체 부위에 바르거나 주입하고 빛을 쏘면 강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즉 정상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종양만 선택적으로 치료한다. <br/><br/><br/> <br/><br/><br/>김정숙 대표는 현직 약사이다. 9년간 약국을 운영하다 신약개발에 흥미를 느껴 항암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광역동 치료법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하기는 쉽지 않았다. <br/><br/><br/> <br/><br/><br/>김 대표는 회사 설립 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과제, 산학연 기술공동개발사업 등 국가과제를 수행하면서 광역동 치료용 광민감제 등을 개발해 냈다. <br/><br/><br/> <br/><br/><br/>라이트팜텍은 최근 항산화제 연구 과정에서 간의 해독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응용, 숙취해소제인 '편安타'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편안타'는 기존 숙취해소제와는 다르게 숙취의 주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신속히 분해하도록 무색무취의 액체를 술 한병에 한포씩 타서 먹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br/><br/><br/> <br/><br/><br/>약국을 운영하면서 김 대표는 수족관 물갈이 액체(항산화제) '아쿠아센스'를 개발하는 등 늘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 항산화제를 넣으면 수년간 물이 썩지 않는다. 음이온이 발생해 공기정화 기능도 갖고 있다. <br/><br/><br/> <br/><br/><br/>김 대표는 "차세대 광민감제를 이용한 광역학 치료법을 전파해 암 치료 및 말기암 증상 완화, 그리고 중요한 인체장기의 기능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br/><br/> <br/>Copyright